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4.09. 화 18:00-21:00			장소	도서관 스터디룸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저자	나겨울
	출판사	위너스북	출판연도	2026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고착된 우울의 기후에 갇힐 것인가, 순환하는 희노애락의 날씨를 향해할 것인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으로 묻는 감정의 수레바퀴					
활동 내용 & 방법						
<p>감정 기복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보다 단단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다룬 책으로 나겨울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을 선정했다. 이 책은 기쁨, 분노, 슬픔, 불안처럼 누구나 겪는 다양한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로 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토론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창한 이론보다는 일상적인 사례와 공감 가능한 문장들을 통해 감정과 관계, 자기조절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 참여자 각자의 경험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라고 보았다.</p> <p>먼저 각자가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과, 자신이 특히 공감했던 감정의 순간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이후 우리는 왜 책을 읽기 전부터도 이미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규범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 그 배경을 부모의 양육 방식,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화 경험, 또래관계, 기숙생활과 같은 집단환경 등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연결하여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당일 약속 취소’처럼 비교적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존중과 감정 조절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을 예시로 삼아,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왜 사람마다 불쾌감의 크기와 반응 방식이 달라지는지, 또 그 감정이 공격적인 태도로 번지지 않도록 각자가 어떤 기준과 대처 전략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었다.</p> <p>마지막으로는 감정이 기분이 되고, 기분이 태도로 이어지며, 다시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개인별 정서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성향과 경험, 그리고 MBTI가 시사하는 정서 처리 경향을 함께 참고하여, 어떤 사람은 감정이 관계의 분위기로 빠르게 퍼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면에서 깊게 해석하며, 또 어떤 사람은 원인 분석이나 생활의 질서 회복을 통해 감정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오늘의 감정날씨일기’를 직접 작성해 보며, 감정을 막연히 느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로 구체화해 보는 활동의 효용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감정의 원인과 흐름을 객관화하며,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걸음 거리 두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자기이해와 감정 관리 도구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은 각자가 하나의 질문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 구체적인 상황 분석을 덧붙여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마지막에는 논의 내용을 질문별로</p>						

정리하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이 말하는 감정 조절이 단순히 참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기이해와 성찰의 과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활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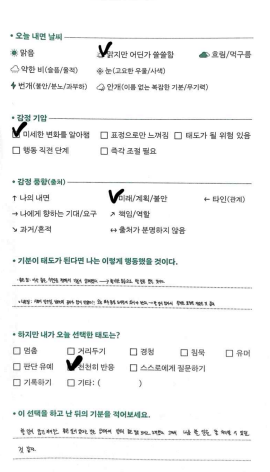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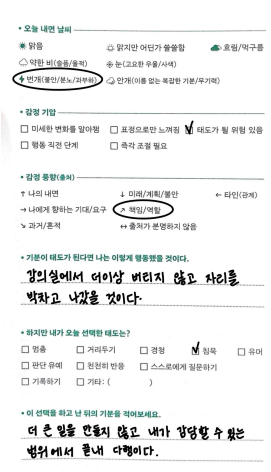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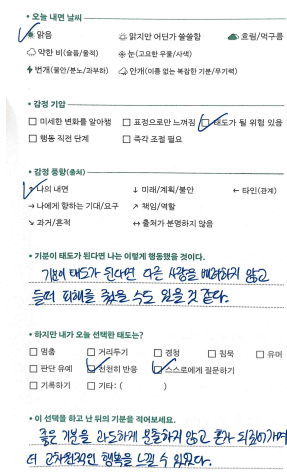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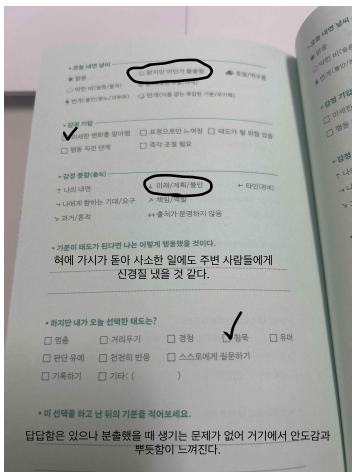
Prologue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는, 기쁨을 '고통 속에서도 느껴지는 생의 의지와 긍정'이라고 불렀다. 고통의 바다 같은 인생에서 헤엄치며 종종 만나게 되는 순간적이고 생생한 감정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쁨을 고통과 분리되는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라고 본 것이다. (93p)”

이 책에서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바로 휩쓸리기보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기록해 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쁨을 고통과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으로 보기보다, 때로는 고통을 지나며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본 이 문장이 더 와닿았다. 힘든 순간에도 언젠가 그 안에서 기쁨이나 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감정에 조금 덜 압도될 수 있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만약 일기 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아무 종이에 생각나는 말을 적어 봐도 좋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쓴 후에 눈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 읽어보면 더 좋다. 손으로 한 번,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그렇게 꺼내놓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번 되새기다 보면 스스로가 그토록 답답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며 숨통이 트일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다 보면, 내 안에 머무르는 부정적 감정과 기분을 속에 두지 않고 꺼내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또한 자기 인식과 통찰력이 향상되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발판도 만들어진다. 혼자서 하는 글쓰기는 누군가로부터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솔직하고 자유로운 행위이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시간을 갖다 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으며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p.35-36) ”



▶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책의 부록에 수록된 ‘오늘의 감정날씨일기’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을 읽기 전부터도 ‘감정과 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이러한 인식은 부모의 양육 방식, 학교생활, 또래집단, 기숙 환경 등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었는지 각자의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까요?

>*빈: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상태가 깨지는 과정 자체가 결국 사회성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누구나 자기 감정과 욕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래집단 안에서 처음으로 그게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내 기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고, 다른 친구도 똑같이 감정이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무교육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처음으로 '개인'에서 '사회적 존재'로 이동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준: 저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부딪혀보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이 마냥 예쁘고 평화롭지는 않죠. 근데 오히려 그런 충돌 속에서 자기 감정의 크기, 타인과의 거리, 말과 행동의 결과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는 자아가 급격히 커지는 시기라서 자기중심성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데, 그걸 친구 관계나 갈등 경험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시행착오가 일종의 사회적 면역 형성 과정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딪혀봐야 이후에 관계를 더 건강하게 다루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은: 저는 기숙학원 생활을 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힘들다'는 걸 계속 내면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들 때는 누구나 자기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압박을 견디는 사람들을 매일 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결코 개인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도 배우고, 내 예민함을 조금 객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감정 조절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은 조건 안에 있구나'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요.

>*인: 저는 기숙학교 생활도 사람을 좀 빨리 철들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친구들이랑 붙어 지내면 관계가 굉장히 농밀해지고, 그만큼 사소한 말이나 분위기 변화도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내 태도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되게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수 있죠. 특히 고1처럼 아직 관계 기술이 충분히 자리잡지 않았을 때나, 고3처럼 모두가 예민한 시기에는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폐쇄적이고 밀도 높은 환경일수록 오히려 자기조절이나 타인 배려 같은 사회적 기술이 더 빨리 발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나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도 깊어지고요. 그래서 힘든 만큼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환경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빈: 다음으로는, 이 책에서처럼 극단적인 우울이나 깊은 상실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겪는 감정의 균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만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좌절보다는 일상적이지만 관계의 온도과 자존감을 분명히 건드리는 상황에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시로 '당일 약속 취소'건이 떠오르는데요, 당일 취소는 일정이 변경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인 시간과 기대, 준비,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묻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실망, 분노, 허탈감, 체념, 거리두기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죠.

2. '당일 약속 취소'는 왜 단순한 일정 변경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와 감정적 동요를 유발하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대의 행동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례함'과 '존중의 결여'로 해석하게 되는가? 또한 그 순간 느껴진 기분이 곧바로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빈: 저는 새내기 때 2:2 밥 약속을 당일에 취소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남았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인데 당일에 연락도 안 되고, 결국 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일정이 비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되게 가볍게 취급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약속 자체보다도 그 약속을 위해 들인 기대, 준비, 시간까지 같이 깨졌을 때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기분에만 휘둘리기보다,

예약금이 있거나 취소 기준이 분명한 장소를 잡으려고 해요. 감정을 소모하면서 상대를 원망하는 것보다, 아예 구조를 바꿔서 내 하루가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준: 저도 당일 취소가 왜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과외하러 왕복 3시간 걸리는 곳까지 갔는데, 당일 취소를 세 번 연달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두 번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건 단순히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노동이나 시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상대에게는 쉽게 취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다고 거기서 감정적으로 화를 쏟아내면 결국 저도 제 감정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환불 불가 원칙을 분명히 말했어요. 기분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준으로 대응한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게 제 노력과 전문성을 더 제대로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은: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약속이 취소되면 내심 좀 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당일 취소는 확실히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충분히 미리 말할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통보하듯 취소하면, 그건 상대 시간을 자기 시간보다 덜 중요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런 불쾌함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뒷담화를 하거나 계속 그 기분을 전염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은 인정하되, 그 기분이 제 태도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게 선을 그으려고 해요. 감정은 생기지만, 그 감정을 어디까지 흘려보낼지는 결국 내가 정하는 것 아닐까요.

>*인: 저는 특별한 이유 없는 당일 취소는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약속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이란 에너지를 미리 배분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성 간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정서적 기대가 더 크기도 해서, 당일 취소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유 없는 반복적 취소를 그냥 성향 차이로 넘기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다시 약속을 잡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자기보호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모든 취소를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정말 납득 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상대가 미안함과 책임감을 분명히 보인다면 그건 무례함이라기보다 상황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취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얼마나 책임 있게 다루는가인 것 같아요.

>*준: 당일 약속 취소처럼 비교적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감정이 어떻게 상처와 분노로 번지고 또 각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태도로 관리하는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 이후의 정서적 흐름은 꽤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곧바로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감정을 증폭시키며, 또 어떤 사람은 원인 분석이나 자기조절을 통해 빠르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경로를 지나 기분이 되고, 태도가 되고,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의 습관으로 굳어지는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3. 각자의 성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기분→태도→관계→삶으로 이어지는 개인별 정서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장점 키워드

- #관용적인 #리더십
- #신뢰할수있는
- #실득력있는 #이타적인
- #모범적인 #천성지도자
- #경청을 잘하는
- #빠른 학습능력 #계획력

단점 키워드

- #지나친 이상주의
- #예민한 #변동하는 자존감
- #고집있는 #회피적
- #과한 친절 #비판에 취약
- #상처를 잘받는
- #우유부단한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장점 키워드

- #친절한 #영감
- #이타적인 #수용적인
- #결단력 #부지런함
- #신중한 #섬세한
- #느그러운 #계획이행
- #창의력 #해결력

단점 키워드

- #내성적인
- #예민한 #현실성 부족
- #쿠르다스 멘탈
- #지나친 완벽주의
- #고집 센 #지나친 주관
- #가치와 충돌하는 일 회피

INFJ
선인의 옹호자

동화본



장점 키워드

#아이디어뱅크
#직관력 #독창적인
#지적인 #영리한
#몰두 #논리적인
#효율적인 #빠름
#열정 #정직 #문제해결

단점 키워드

#개인적인 #직설적인
#멀티태스킹 부족
#반항적 #둔함
#회의적인 #과묵한
#부족한 표현력
#사회성 부족 #금방 싫증

INTP
논리적인 사색가

동화본



장점 키워드

#분석적인 #집중력
#규칙적인 #모범적인
#논리적인 #책임감
#신중한 #정확한
#정직한 #반복적인 일
#우수한 도덕성

단점 키워드

#원칙주의자 #보수적
#융통성부족 #사교성부족
#감정표현 미숙
#안락주의 #낮기림
#일에 대한 강박성
#선입견 #변화적응부족

ISTJ
정림결백한 논리주의자

>***빈(ENFJ)**: 저는 제 감정이 몸을 통해 굉장히 빨리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서 어떤 회로가 켜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말투의 속도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걸 스스로도 빨리 알아차려요.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도, 저는 늘 제 감정이 인지보다 먼저 신체를 두드린다고 느껴요. 감정이 먼저 몸에 도착하고, 그다음에야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식이죠.

ENFJ라는 유형을 완전히 신뢰한다기보다 하나의 해석 틀로 보자면, 저는 확실히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에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혼자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이 관계 속 공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느껴요. 좋을 때는 그게 장점이 되죠. 제 에너지가 주변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분위기를 데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가라앉아 있을 때는 그 파동도 너무 투명하게 전달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이 제 컨디션을 읽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정서 메커니즘은 대체로 감정이 생기면 먼저 몸이 반응하고, 그 몸의 반응이 기분의 상태를 빠르게 자각하게 만들고, 그 기분은 곧 관계의 분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태도 관리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윤리의 문제처럼 느껴져요. 결국 제 삶에서는 ‘내 감정이 진짜인가’보다 ‘그 진짜 감정을 어떤 형식으로 타인 앞에 놓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기자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진정성과 태도의 책임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준(INFJ)**: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예민함이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감 자체가 섬세해서 작은 소음이나 빛, 분위기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자극도 저는 오래 붙잡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감각이 예민하면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의 감정이 단순히 지나가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점점 해석의 층위를 덧입게 돼요.

INFJ라는 틀로 말해보자면, 저는 바깥 자극을 그냥 정보로 받기보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한 번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감정 하나가 과거의 경험이나 관계의 맥락, 자기평가 같은 것들과 연결되면서 점점 깊어져요. 작은 서운함이 단순한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고, 존중의 문제, 존재의 문제, 나와 타인의 거리 문제까지 확장되는 식이죠. 저는 이게 장점일 때는 사람과 상황을 깊게 이해하는 힘이 되지만, 어두운 쪽으로 가면 혼자만의 우울한 메커니즘으로 빠져들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제 정서 흐름은 아마 이렇 거예요. 감정이 생기면 감각이 그것을 오래 붙잡고, 붙잡힌 감정은 생각을 통해 확대되며, 확대된 기분은 태도를 조심스럽게 만들거나 때로는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그 태도는 결국 관계에서 거리감이나 침묵의 형식으로 드러나서 저는 오히려 원칙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존중, 예의, 상호성 같은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무한히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제 삶에서 원칙은 차가운 규칙이라기보다, 예민한 마음이 스스로를 잃지 않게 불드는 구조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인(INTP)**: 저는 평소에는 기분의 진폭이 큰 편은 아니에요. 막 쉽게 화가 나거나 쉽게 들뜨는 스타일도 아니고, 감정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느껴요. 오히려 제 안에서는 감정보다 먼저 상황의 구조를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어떤 논리로 움직였는지, 내가 지금 불편한 이유가 감정 때문인지

원칙 때문인지부터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INTP라는 분류를 가져와 보면, 저는 확실히 내면에 독자적인 판단 체계를 두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사실은 아무 기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의 논리적 질서가 꽤 단단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 특히 제가 불의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게 돼요. 저는 그때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 폭발이라기보다, 세계가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제 정서 메커니즘은 대체로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오지만, 어떤 사건이 제 내적 원칙과 충돌하는 순간 그 태도는 관계를 선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납득 가능한 상황에는 꽤 유연한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는 의외로 아주 냉정해질 수 있어요. 결국 제 삶에서는 감정의 세기보다도, 무엇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느냐가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은(ISTJ): 저는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 상태에 그냥 오래 머물기보다는, 일단 그걸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든 조절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프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부러 좋은 점을 찾아보거나, 과거의 나보다 나아진 점을 떠올리면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거의 무의식적인 생존 전략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ISTJ라는 유형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면 안 되겠지만, 저는 확실히 예측 가능한 질서와 생활의 안정감 속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편이에요. 감정을 거대한 의미로 확장하기보다, 일상을 다시 정렬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거죠. 밥을 잘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정 조절의 중요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무너질수록 더 작은 질서를 붙잡으려고 해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내 하루를 다시 구조화하는 셈이죠.

제 경우에는 감정을 인식한 뒤, 그것이 기분으로 고착되기 전에 의미를 재배치하거나 생활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조절해요. 그 결과 관계에서도 감정적 폭발보다는 신중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삶 전체 역시 극적인 기복보다는 지속 가능한 리듬을 지향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주 화려한 방식은 아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가장 덜 무너지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느껴요.

4. 책에 나온 감정들, 대표적으로 우울이라는 감정은 희노애락이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아가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에 대해 의학적 및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고찰할 수 있을까?

>*빈: 그럼 이 책을 '희노애락'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볼까요? 저는 그중 '애(哀)'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울'로 치달는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감정의 순환인 '희노애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해 말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문학적 또는 의학적 관점에서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준: 저는 먼저 무엇보다 '우울감'과 '우울증'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희노애락의 관점에서 '애', 즉 슬픔은 인간이 상실이나 결핍을 겪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건강한 정신 안에서 이 슬픔은 '희'나 '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즉, 다시 다른 감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환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울증은 이러한 감정의 수레바퀴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버린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슬픔이 삶의 배경인 기후가 되어버려,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날씨가 들어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은: 실제로 우울증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및 인지적 시스템의 이상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1차적으로는 SSRI나 SNRI 등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나, CBT나 IPT 같은 정신치료를 진행해요. 2차적으로는 보조 치료를 진행하는데, 환자의 생활 리듬을 재구성하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요.

반대로 우울감의 경우에는 휴식이나 여행, 루틴 회복 같은 환경 조정, 글쓰기나 대화, 예술 같은 정서 표현, 그리고 인식 전환과 신체 기반 개입처럼 감정을 흐르게 만드는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인: 가장 중요하게 임상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우울감은 왜 우울한지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기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우울한 이유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기쁨 자체가 차단된 상태로, 의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빈: 이걸 희노애락 구조와 연결시켜보면, 우울감은 애의 일부로 다른 감정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감정 순환 자체가 붕괴한 것이라 희나 노, 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준: 또 저는 문학 속에서 묘사되는 우울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봤어요. 문학 속 우울은 개인이 사회나 문명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굴절된 형태라고 봐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분노가 대상을 잃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결국 병리적인 우울로 고착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감정을 분석해 원인을 찾으라고 하지만, 사실 소설 속 인물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좌절은 단순한 기분 전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 씨의 사례처럼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회복 가능한 일상적 '우울감'과 달리, 감정의 순환이 완전히 무너진 '우울증'은 의학적 개입이 필수적인 '일차 치료'의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 *준 씨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우울할 때 보였던 독특한 행동들도 이해가 가요. 저는 우울하면 오히려 '조증'처럼 에너지를 분출하며 무언가를 사재기하곤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물감을 잔뜩 사거나, 수험생 시절 킨더 초콜릿을 박스째로 샀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무너진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가 강제적으로 '희'와 '락'의 자극을 찾아 나섰던 보상 기전이었던 셈이죠. '애'의 늪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제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인: *빈 씨가 밖으로 에너지를 분출했다면, 저는 정반대였네요. 사춘기 시절 우울함을 느낄 때면 타인과 완전히 단절하고 홀로 깊이 침잠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외부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감정의 순환계를 재정비하려는 저만의 내향적 치유 과정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 대화의 핵심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내 우울이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감정'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고착된 질병'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서적·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죠.

활동 자료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4.14. 화 18:00-21:00			장소	도서관 스테디룸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멋진신세계			저자	올더스 헉슬리
	출판사	소담출판사	출판연도	2015	번역자	안정효
오늘의 북클럽 주제	배부른 돼지의 안락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존엄인가 - 『멋진 신세계』로 묻는 행복, 고통, 그리고 문명의 방향					
활동 내용 & 방법						
<p>‘희’를 다룬 책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선정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작품이 보여 주는 문명사회의 안정과 만족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질문해 보고, “배부른 돼지의 안락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존엄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단순한 쾌락과 성찰된 행복의 차이를 함께 정리한 뒤, 작품 속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것들, 즉 가족·역사·종교·깊이 있는 예술·사랑·고통·다양성 등을 하나씩 짚어 보며 이 사회가 무엇을 대가로 안락을 얻었는지 이야기했다. 이어서 고통이 제거된 만족을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지, 작가가 왜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배양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설정했는지, 그리고 버나드·헬름홀츠·존 같은 인물들이 드러내는 인간다움의 흔적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다.</p>						
활동 결과						
<p>1.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p>						
구분	단순한 기쁨(즉각적 희)	고차원적 기쁨 (성찰된 희 / 락에 가까운 행복)		『멋진 신세계』와의 연결		
감정의 결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쁨	고통과 의미를 통과한 뒤 기쁨		『멋진 신세계』는 앞의 기쁨을 극대화하고, 뒤의 기쁨은 지워 버린다		
시간성	짧고 순간적	오래 지속되고 삶 전체를 감싼다		희는 ‘날씨’처럼 지나가고, 락은 ‘기후’처럼 삶의 바탕이 된다		
통제 가능성	약물·소비·쾌락으로 쉽게 조절 가능	자유·성찰·상실·인내가 필요해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명사회는 고차원적 기쁨보다 관리 가능한 기쁨을 선택한다		

사회의 표어	“A gramme is better than a damn.”	고통을 지워 버리는 대신, 고통의 의미를 견딜 줄 아는 상태	소마는 슬픔을 없애지만, 인간적인 성숙도 함께 없앤다
관계의 방식	“Everyone belongs to everyone else.”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상실까지 감당하는 관계	얕고 넓은 쾌락은 허용되지만, 깊고 배타적인 사랑은 제거된다
삶의 태도	“Ending is better than mending.”	불완전함을 견디며 오래 붙드는 삶	버리고 바꾸는 사회는 유지되지만, 애착과 기억의 깊이는 사라진다
개인과 사회	“When the individual feels, the community reels.”	개인이 느끼고 흔들리며 스스로 의미를 찾는 삶	문명사회는 공동체 안정을 위해 개인의 깊은 감정을 위험 요소로 본다

>*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이 문장은, 단순히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곧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 때문에 『멋진 신세계』를 ‘희(喜)’와 연결해 보게 됐어요. 보통 희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쁨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 소설처럼 느껴졌거든요.

>*은: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분명히 불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소마도 있고, 오락도 있고, 소비도 있고, 사회적 안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회는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느낀 건, 이 사회의 행복은 그냥 즉각적이고 관리 가능한 기쁨에 가깝다는 거였어요. 힘들면 소마를 먹고, 공허하면 소비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흩어져 버리니까, 고통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깊이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희가 진짜 희인가’를 되묻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빈: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읽었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비유로 가져와 보면, 기분은 기후 같고 감정은 날씨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희노애락에 대입해 보면, 저는 희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날씨 같은 감정, 락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기후 같은 상태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희는 “좋다!” 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이라면, 락은 삶 전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누리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멋진 신세계』의 문명사회는 희를 계속 공급하는 사회이긴 한데, 락까지는 못 가는 사회 같았어요. 기분 좋은 자극은 넘치는데, 삶을 깊이 긍정하는 지속적인 행복은 없는 거죠.

>*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작품을 희로 선정한 게 오히려 더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희가 맞나?” 싶었는데, 읽을수록 희를 가장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작품 같았거든요. 특히 이 사회는 “A gramme is better than a damn” 같은 식으로, 고통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행복을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과연 진짜 행복일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작품이 보여주는 건 행복 그 자체라기보다, 행복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서 무엇이 사라지는가인 것 같아요.

>*빈: 저는 여기서 희와 락의 차이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희가 순간의 기쁨이라면 락은 조금 더 오래 가는 평안이나 충만함에 가까운데, 『멋진 신세계』는 희를 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회 같았어요. 즉,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극과 쾌락을 주는데, 그걸 마치 완성된 행복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자유도 없고, 진짜 사랑도 없고, 고통을 견디며 얻는 성숙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준: 네, 그리고 여기서 밀의 말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존재잖아요. 반대로 돼지는 배부르고 만족스럽더라도, 그 만족은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만족일 수 있고요.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배부른 돼지” 쪽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불편함은 없고, 고통도 없고, 크게 흔들릴 일도 없지만, 그 대신 질문하는 능력, 불행해질 권리, 깊이 사랑할 권리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품을 희와 연결하면서도, 그 희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질적으로 낮은 기쁨과 질적으로 높은 기쁨의 대립으로 읽게 되었어요.

>*빈: 맞아요, 저도 *준 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쓰인 시대를 같이 놓고 보면, 당시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정말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절실한 선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멋진 신세계』가 쓰인 1931년, 1932년이라는 시기는 단순히 철학적으로만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집단주의적 질서가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얻던 시기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시대에는 자유나 개성, 고통을 견디는 존엄 같은 가치보다도, 일단 빵과 안정, 예측 가능한 질서가 더 인간적인 구원처럼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은: 그래서 저는 『멋진 신세계』를 읽을 때, 헉슬리가 단순히 “쾌락은 저급하다”라고 도덕적으로 꾸짖는다고만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는 왜 사람들이 저급한 만족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그 역사적 조건까지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프고 세계가 흔들리고 내일이 너무 불안한 시대라면, 사람들은 고차원적 자유보다도 당장의 안락과 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배부른 돼지”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기보다, 어떤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유혹적인 인간상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빈: 그래서 작가의 통찰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이 폭력 때문에만 복종한다고 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안정, 소비, 쾌락, 예측 가능성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게 되는 사회를 상상했어요. 세계국가가 포드주의적 원리, 즉 대량생산과 획일성, 예측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단순히 공산주의만 풍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본주의만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 파시즘·집단주의·기술관료주의·대량소비사회가 공유하는 동일한 욕망, 즉 인간을 불편하지 않게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은: 그래서 저는 *준 님의 ‘배부른 돼지’ 비유에 되게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왜 돼지가 되기를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는 돼지로 사는 일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안전처럼 느껴졌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빼앗겨서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유보다 안락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스스로 자기 삶의 깊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는 저에게 고차원적 기쁨이 더 낫다는 교훈이 아니라, 왜 인간이 낮은 차원의 기쁨을 사랑하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명론적으로 묻는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인: 저는 여기서 책의 ‘운명의 돌팔매질’이라는 표현도 같이 생각났어요. 인간은 결국 살면서 가혹한 순간을 피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결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이야기하면서, 어떤 가혹한 순간을 그냥 견디는 것은 희에 가깝고, 그걸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것은 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락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삶의 불완전함까지 어느 정도 수용한 뒤에 가능한 상태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멋진 신세계』는 돌팔매질 자체를 없애 버리려는 사회이고, 그래서 오히려 락으로 갈 가능성도 차단해 버리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 맞아요, 이 사회는 인간에게서 슬픔만 없앤 게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면서 생길 수 있는 깊이도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희로 읽는 이유는, 이 작품이 행복해 보이는 사회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를 가장 날카롭게 묻기 때문 아닐까요, 그냥 웃고 만족하면 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와 고통, 사랑과 상실까지 끌어안은 기쁨이 더 높은 희인지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준: 『멋진 신세계』를 ‘희’의 작품으로 보되,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낮은 차원의 기쁨과 고통과 성찰을 통과한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비교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속 사람들은 분명 만족하고 있는데, 그 만족은 과연 진짜 행복일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를 단지 허구적 디스토피아로만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고통을 줄이는 대신 질문도 줄이고, 가능성을 넓히는 대신 스스로 욕망을 축소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이 삶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멋진 신세계』는 이미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경향을 과장해 보여주는 작품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인: 그럼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행복이란 불행이 제거된 상태인가, 아니면 고통까지 감당하며 끝내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상태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불편과 고통을 지워서 만들어진 만족이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그건 그냥 잘 설계된 안락함에 가까운 건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주 먼 미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은: 고통을 줄이는 대신 버티는 힘도 줄어들고, 가능성을 넓히기보다 스스로 욕망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이 모두 없으니 말이에요.

>*빈: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가 자녀의 삶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작품은 이미 시작된 현대사회의 확장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럼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와 ‘우리는 이미 그 사회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 질문으로 더 나아가 볼까요?

2. 고통이 제거된 만족은 행복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이 제거된 안락인가?

>*은: 『멋진 신세계』가 ‘행복한 사회냐 아니냐’만을 묻는 작품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히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과연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묻는 작품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 사람들은 분명 불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괴롭거나 불안하면 소마를 먹으면 되고, 관계도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니까 상처도 덜 받고, 사회 전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통을 없애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깊이까지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기보다 인간다움이 제거된 안락함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빈: 디스토피아의 원형소설로 꼽히는 만큼 이런 논의의 시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고통이 없다는 것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도 현실에서 힘들 때는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멋진 신세계』는 고통만 제거한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질문, 성장, 성숙, 관계의 밀도까지 같이 없애버렸다는 점이 무서웠어요. 우리가 힘들 때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결국 평소에 있는 고통과 파생되는 과정을 견뎌낼 때 인간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랑도 그렇고, 상실도 그렇고, 기다림도 그렇고, 원래는 다 힘든 경험인데 동시에 인간을 깊어지게 만드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명사회는 그런 걸 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제거해버리니까, 걸으로는 “안정”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얇은 삶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속 만족은 행복이라기보다, 잘 설계된 무통 상태에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인: 저도 공감해요. 여기서 저희가 전에 이야기했던 희와 락의 차이도 다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에서 기분은 기후 같고 감정은 날씨 같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희는 순간적인 감정에 가깝고 락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멋진 신세계』는 사람들에게 희 비슷한 건 계속 제공해요. 소마를 먹으면 바로 기분이 괜찮아지고, 감각적인 오락도 있고, 즉각적인 만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락, 그러니까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지속적인 행복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락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가혹함까지 수용한 뒤에 가능한 감정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희는 끊임없이 공급하지만, 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막아버린 사회 같았어요.

>*준: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서 ‘고통이 제거된 만족’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거된 건 단순히 아픔만이 아니거든요. 불편함, 결핍, 상실, 갈등, 모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제거돼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삶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하면 괴롭지만 그걸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멋진 신세계』는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살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인: 문명사회의 지도자들도 고난을 겪어야 인간다워진다고 인지를 하고있기 때문인지 안정적인 고난마저 제공해주잖아요. V.P.S.(‘격렬한 열정 대치 처리 요법’)라는 것으로.

>*은: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몸 전체에 아드레날린을 공급해 줍니다. 그건 생리학적으로 두려움과 분노에 대등한 작용을 해요.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으면서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거나 오셀로에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과 똑같은 모든 활기 촉진 효과를 유도합니다.”

>*빈: 그러니깐요, 문명사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진폭은 다 지워 놓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만을 바라는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지, 굳이 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3. 굳이 인간으로 설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은: 저는 헉슬리가 이 사회를 굳이 로봇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로 설정한 이유가, 결국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한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로봇은 애초에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사랑하고, 상실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헉슬리가 보여주고 싶은 공포는 “기계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인데도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준: 그 지점에서 이 소설의 비극이 생기고, 존이 끝까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장면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로봇에게는 불행해질 권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그 권리가 곧 존엄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버나드나 헬름홀츠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은 체제 안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데도 계속 어긋나잖아요. 버나드는 알파인데도 규격에서 미묘하게 벗어나 있고, 헬름홀츠는 체제가 허락하는 언어보다 더 큰 언어와 더 깊은 감정을 원해요. 아마 헉슬리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단순히 쾌락의 총량만으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언제나 과잉의 차원, 즉 체제가 계산하지 못하는 욕망, 수치심, 자의식, 초과된 언어가 남아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사회가 정말 로봇의 사회였다면, 그런 균열은 애초에 문제로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헉슬리는 오히려 그 균열을 남겨 둬으로써, 아무리 정교한 문명이라도 인간 내부의 잔여를 완전히 소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인: 저는 이것을 효용론적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멋진 신세계』의 문명사회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이예요. 사회 전체의 불행을 최소화하고, 쾌락과 안정의 총량을 극대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날카롭게 건드리는 건, 행복을 양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존 스투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하면서,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즉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존재는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을 요구하고, 단순한 안락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가 굳이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요. 인간은 돼지처럼 배부르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자유·자기반성 같은 고차적 선을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빈: 그래서 이 소설이 공리의 실패를 보여준다기보다, 오히려 질적 효용을 삭제한 공리주의가 어떻게 인간을

축소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헉슬리가 이 작품을 쓴 시대와도 연결해서 보고 싶어요. 『멋진 신세계』는 1931년에 집필되고 1932년에 출간된 작품인데, 그 시기는 대공황의 충격이 남아 있었고, 한편으로는 포드식 대량생산,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주의 정치가 강한 설득력을 갖던 시기였어요. 헉슬리 자신도 이후 이 작품에서 20세기 정치와 기술의 흐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기계문명 자체가 아니라, 정치와 기술이 결합해 인간을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굳이 인간을 남겨 둔 이유는, 이 체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로봇을 통제하는 사회는 무서울 수는 있어도 윤리적으로 충격적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인간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고 조건화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를 줄 수 있죠. 헉슬리는 로봇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통해, 문명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환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4. 『멋진 신세계』의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것들?

>*빈: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명사회를 읽으면서 현대사회의 어떤 요소들을 제외한 것인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가족이 생각났어요. 부모, 출산, 혈연, 양육 같은 게 다 혐오스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처음으로 애착과 돌봄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가족이 사라졌다는 건 결국 인간적인 관계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 저는 역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9년전쟁을 거치고 이 사회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있다는 건 지금의 삶을 비교하고,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옛날 얘기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현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빈: 9년전쟁은 문화대혁명인가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전쟁 중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은: 9년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감과 또 다른 대규모 전쟁에 대한 불안을 압축한 가상의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특정 전쟁 하나라기보다, 전쟁과 경제 붕괴가 반복되던 시대가 낳은 총체적 공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 저는 종교나 초월적인 의미가 사라졌다고 느꼈어요. 인간은 원래 고통이나 죽음을 겪으면서 “왜 사는가”, “삶의 의미는 뭔가” 같은 걸 묻게 되는데, 이 사회는 그런 질문 자체를 소마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줄인 대신, 고통을 넘어 의미를 찾으려는 힘도 같이 지운 사회 같았어요.

>*은: 저는 깊이 있는 예술과 문학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도 결국 그런 예술이 인간의 욕망, 상실, 비극, 사랑 같은 걸 너무 깊게 건드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감각적인 오락은 남겨두지만, 사람을 흔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술은 없애버린 것 같아요.

>*준: 저는 깊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모두와 연결되지만 누구와도 깊게 연결되지 못하고,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감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지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원래 기쁨뿐 아니라 질투, 기다림, 상실까지 다 포함하는 감정이니깐, 그게 사라졌다는 건 결국 관계의 밀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빈: 저는 고통과 결핍이 사라진 게 제일 핵심 같았어요. 이 사회는 힘들면 바로 소마를 먹고, 불편하면 바로 해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인내, 성찰, 성장, 극복 같은 것들이요. 지금까지 토론에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 사회는 불행을 줄인 사회인 동시에, 성숙의 조건을 잃은 사회

같았어요.

>*인: 저는 개인의 개성과 내면성이 사라졌다고 봐요. 사람을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해 배치된 기능 단위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삶이 아니라, “나는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로 환원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내면이 있는 인간의 사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준: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회에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처럼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유롭게 생겨난 다양성이 아니라, 체제가 관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는 차이잖아요. 게다가 각 계급에도 4가지 정도로 외형적 분류가 되고, 사실상 다양성을 잃은 셈이죠. 다양성이야말로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구분은 있지만 개성은 없는 사회인 거죠.

>*빈: ‘다양성은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인가?’ 후속 토론 주제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5. 왜 『멋진 신세계』는 읽는 내내 묘하게 불편하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가?

>*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솔직히 굳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사전을 아예 켜 두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혼음’ 같은 단어를 실제로 찾아가면서 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도 약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단순히 낯선 단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적인 묘사가 생각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더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노골성이 단순히 자극을 위한 장치라기보다, 이 사회가 성을 더 이상 사랑이나 친밀성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순환되는 쾌락의 기제로 바꾸어 놓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오히려 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가장 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했어요.

>*은: 저도 읽으면서 솔직히 “귀하게 자란 내가 이런 걸 꼭 봐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준: 맞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문명사회에서 성은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라기보다, 소비되고 교환되는 감각적 경험처럼 다뤄지고, 피임이나 쾌락의 관리도 굉장히 세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반면 야만인 보호구역에서는 성생활이 오히려 번식과 원초적 욕구 쪽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저는 이 대비도 인상 깊었어요. 한쪽은 성을 지나치게 문명화해서 비인격적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다른 한쪽은 성을 보다 본능적이고 생식적인 차원에 묶어 두는 것처럼 보여서,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의 완성형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성을 통해 문명과 야만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둘 다 인간의 몸을 충분히 존엄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불편한 감각도 남겼던 것 같아요.

>*은: 저는 그 점에서 『멋진 신세계』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독자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성적인 장면이 많아서 충격적인 게 아니라, 몸과 욕망이 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섬뜩하거든요. 문명사회에서는 성이 금기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조직된 것 같아요.

>*빈: 사랑은 불안정하니까 제거하고, 임신은 비효율적이니까 통제하고, 육체적 친밀성은 가볍게 소비 가능한 형태로만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해방된 사회처럼 보이는데, 실은 몸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사회공학적으로 관리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품이 성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히 파격적이기보다, 문명사회가 인간을 어디까지 객체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래서 실사화가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웠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성적인 장면이 많아서 등급 문제만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작품의 핵심 불편함이 너무 시각적으로 직접적이기

때문이에요. 배양, 출산의 제거, 성의 상품화, 관계의 비인격화 같은 요소들은 활자로 읽을 때도 충격적인데, 그걸 영상으로 구현하면 자칫 원작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보다 표면적인 자극만 더 부각될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 우리 왜 이 명작에 실사화된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는지 더 깊게 고민해볼까요?

6. 왜 『멋진 신세계』는 아직도 ‘결정적 영상화’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준: 저는 이 작품이 아직도 강하게 남는 대표 영화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원작이 철학적이거나 어렵다는 데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소설의 핵심 장면들이 시각화되는 순간 곧바로 윤리적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간을 병 속에서 배양하고 계급별로 품질을 조절하는 장면, 하층 계급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달을 제한하는 장면, 유아에게 전기 충격과 조건형성을 가하는 장면, 성을 조기부터 사회적 습관처럼 주입하는 장면 같은 것들은 오늘날의 관객에게 단순한 SF 설정이 아니라 우생학, 아동의 대상화, 생식 통제, 인간 제조의 이미지로 곧장 읽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0세기 초반의 독자에게는 충격적인 풍자였을지 몰라도, 오늘날 영상 매체에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순간 철학적 질문보다 먼저 사회적 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멋진 신세계』가 1931년에 쓰이고 1932년에 출간된 작품이며, 헉슬리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과 사회공학적인 질서를 비판적으로 그렸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소설의 충격은 원래부터 인간을 표준화하는 시대정신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판이 영상으로 옮겨질 때, 그 자체로 너무 현실적인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해 버리는 거죠.

>*은: 맞아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작품을 충실하게 실사화하려고 하면 성의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힐 것 같아요. 원작에서 성은 해방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랑을 제거한 채 쾌락만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화면으로 옮기면 관객은 그것을 철학적 장치로 읽기 전에, 먼저 강요된 성적 규범, 관계의 비인격화, 몸의 상품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더구나 이 사회의 표어 자체가 독점적 사랑을 해체하고 무차별적 친밀성을 정상으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자로 읽을 때는 사회 비판으로 기능하던 설정이 영상에서는 자칫 선정성이나 자극의 연출로 오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원작을 순화하면 독이 빠지고, 반대로 충실하게 구현하면 시대의 윤리 감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인: 실제로 평론에서도 이 작품의 핵심을 우생학과 강제된 난교적 질서, 인간의 표준화에 대한 공포로 짚고 있고, 그래서 그 불편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잖아요.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작품이 가진 충격이 너무 쉽게 철학에서 스펙터클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배양소, 약물, 집단적 의례, 소비문화, 성의 제도화 같은 요소들은 카메라로 잡으면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멋진 신세계』의 본질이 그런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문명 비판의 논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미래가 이상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안락을 사랑할수록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역설을 다루는데, 영상화는 자칫 그 불편한 역설을 지우고 장면의 자극성만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만들었다면 시대적 거리 덕분에 풍자로 읽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생명공학·유전자 편집·출산 통제·약물 관리 같은 문제가 현실의 의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관객은 이를 풍자적 상상력보다 당대 윤리의 민감한 현안으로 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헉슬리의 문제의식이 오늘날 더 현실화되었다는 점이야말로, 이 작품의 영상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빈: 그럼 저는 『멋진 신세계』가 대표 영화로 남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단순히 제작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충실하게 만들면 윤리적으로 위험해지고, 너무 안전하게 만들면 철학적으로 무력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배양, 계급 설계, 성의 상품화, 출산의 제거, 아동기 조건화, 약물을 통한 감정 조절 같은 요소들은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시각화될 경우 너무 많은 생명윤리적·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 버리면, 『멋진 신세계』가 왜 무서운지 설명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늘 “영상화는 되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상태에 머무는 것 같아요. 실제로 Peacock판 드라마도 2020년에 한 시즌으로 종료됐고, 그 자체가 곧 원작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계를 오늘의 관객에게 설득력

있고도 깊이 있게 옳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멋진 신세계』가 아직도 강하게 남는 대표 영화가 없는 이유는, 이 작품이 너무 급진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욕망, 행복과 자유를 둘러싼 윤리적 금기를 너무 정확하게 건드리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7. 『멋진 신세계』는 미래의 허구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현대사회의 확대경인가?

>*인: 저는 대체로 현대사회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사회가 단순히 억압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보다, 욕망의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저는 이게 요즘 말하는 ‘포기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제로 빼앗겨서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쟁과 피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어차피 안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덜 힘든 삶이면 됐다”는 식으로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멋진 신세계』는 인간을 억압해서 침묵시키는 사회라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더 큰 삶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사회를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이미 오늘의 사회가 내면화한 체념의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확대판처럼 느껴졌어요.

>*준: 저는 그 확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고난 제거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는 점점 더 통증과 불편,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물론 그것 자체는 문명의 성취이고, 의학의 본령이기도 하죠. 문제는 고통을 줄이는 기술이 점점 삶 전체를 무통상태로 설계하려는 욕망으로 넘어갈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멋진 신세계』의 소마는 극단적인 장치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약물, 디지털 자극, 소비, 자기계발 담론, 심지어 지나친 심리적 회피 전략을 통해 불편함을 빠르게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고통이 적다고 해서 더 잘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불편과 상실, 실패를 견디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과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기도 해요. 의학적으로도 통증은 단지 제거해야 할 신호이면서 동시에 몸의 상태를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정보이기도 하듯, 삶의 고난 역시 전부 삭제할 수 있는 노이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멋진 신세계』는 고난 없는 사회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 제거가 어디까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작품이고, 그 점에서 현대사회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빈: 저는 이 작품이 특히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가 자녀의 삶에 재생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확장판처럼 느껴졌어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계급이 생물학적으로 설계되지만, 현실 사회는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계층을 재생산하잖아요. 부모의 학력, 경제력, 문화자본, 언어 습관, 돌봄 역량, 네트워크가 자녀의 교육 기회와 자기효능감, 진로 선택, 심지어 “내가 어떤 삶을 꿈꿔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감각까지 규정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을 대체로 결정짓고 있고, 그 학력수준은 사회적 위치와 기대를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는 방식, 먹는 방식 다 재단한다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배양소에서 태어나지는 않지만, 이미 출발선이 구조적으로 분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멋진 신세계』는 거의 100년 전에 쓰인 계급 소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유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덜 노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선별과 분배를 보여주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뀐 게 크게 없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겠죠?

>*은: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멋진 신세계』는 대체로 현대사회의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작품이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 경향을 윤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어떤 인간상이 탄생하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포기사회는 욕망의 축소로, 고난 제거는 무통의 이상으로,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의 재생산은 구조적 계급화로 이어지죠. 의과대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점점 더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기능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생명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처럼 읽혀요. 우리는 의료를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험요인과 효율의 단위로만 환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가를 묻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단체사진) (캐릭터 포스터 사진)

멋진 신세계 캐릭터들을 포스터로 만들었고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 『멋진 신세계』를 읽은 뒤에는 등장인물들을 직접 이미지화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책 속 묘사를 바탕으로 계급에 따라 체구와 외모의 차이를 표현했으며, 알파 계급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다양하게 그린 반면 아래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비슷하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를 통해 작품 속 계급사회가 시각적으로도 더 선명하게 이해되도록 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04-16 목 18:00-21:00			장소	도서관 스테디룸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멋진 신세계			저자	올더스 헉슬리
	출판사	소담출판사	출판연도	2015	번역자	안정효
오늘의 북클럽 주제	결핍, 다양성, 그리고 행복의 조건					
활동 내용 & 방법						
<p>‘희’를 다룬 책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선정했다. 겉으로는 모두가 안정과 만족을 누리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읽어 갈수록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지 되물게 만든다는 점에서 토론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먼저 작품 속 문명사회와 인상적인 장면, 버나드 마르크스와 존 같은 주요 인물에 대한 첫인상을 자유롭게 공유한 뒤, 행복과 결핍,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 작품과 비슷하거나 대조되는 다른 디스토피아 작품들까지 논의를 확장했다. 토론은 각자가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작품의 구체적 장면과 현대사회와의 비교, 관련 영화·소설의 사례를 덧붙여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논의 내용을 질문별로 정리하여, 『멋진 신세계』가 보여 주는 통제된 행복과 인간다움의 조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p>						
활동 결과						
<p>1. 왜 마르크스인가?</p> <p>>*빈: 『멋진 신세계』의 주요 인물인 버나드 마르크스는 왜 하필 ‘마르크스’라는 성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p> <p>>*인: 『멋진 신세계』의 인물 이름들은 대부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데, 버나드 마르크스 역시 칼 마르크스를 떠올리게 하도록 붙인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계급과 체제 비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이름은 처음부터 버나드를 문명사회와 불화하는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데 버나드는 실제로는 마르크스 같은 급진적 사상가나 혁명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알파 계급임에도 왜소한 체격 때문에 소외를 겪으며 문명사회에 불만을 품지만, 그 불만은 체제에 대한 원칙적 비판이라기보다 자신이 그 사회에 잘 녹아들지 못한 데서 비롯된 열등감에 가깝죠.</p>						

>*준: 실제로 그는 야만인 존을 데려와 인기를 얻게 되자, 자신이 비판하던 문명사회의 쾌락과 명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렸어요.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체제 비판을 연상시키면서도, 정작 그 이름에 걸맞은 실천이나 일관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 아이러니와 풍자를 강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행복이 결핍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일까?

>*준: 저는 처음에 행복이 어느 정도는 결핍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아무 부족함도 못 느끼고 있으면 굳이 행복이 뭔지 계속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책에 나온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말도 결국 지금 뭔가가 부족하니까 나오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 자체보다도, 행복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계기에는 결핍이 들어 있다고 봤어요.

>*빈: 저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행복을 묻는 인물들은 다 약간 체제에서 비껴나 있는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버나드도 그렇고 존도 그렇고요. 그런 인물들은 남들과 다르거나, 뭔가 자기 삶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결핍에서 완전히 나온다기보다는, 적어도 행복을 고민하게 만드는 출발점에는 결핍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 꼭 내 안의 부족함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남이 가진 걸 보면서 느끼는 결핍일 수도 있고,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 내는 결핍일 수도 있잖아요. 또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하나의 결핍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인: 저는 이걸 『멋진 신세계』랑 연결해서 보면 더 잘 보였어요. 그 사회는 사람들에게 결핍을 거의 못 느끼게 만들잖아요. 불안하면 소마를 먹고, 각자 자기 계급에 만족하도록 어릴 때부터 조건화하고, 힘든 감정이 오래 남지 않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사회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 좀 얇게 느껴졌어요. 결핍은 줄었지만, 행복의 깊이도 같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은: 그래서 저는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결핍이 있으면 힘들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게 있어야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소중한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존이 마지막에 “불행해질 권리”를 말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느껴졌어요. 그 말은 단순히 고통을 원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결핍이나 상실까지 포함해서 인간답게 살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기보다, 그런 부족함까지 포함해서 삶을 느끼는 것과 더 관련 있는 것 같았어요.

>*빈: 행복이 전적으로 결핍에서 유래한다기보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에는 결핍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멋진 신세계』는 그 결핍을 최대한 없앤 사회를 보여 주면서도, 동시에 행복도 되게 단순한 만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핍이 행복의 반대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행복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 더 깊게 느끼게 하는 한 조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3. 다양성은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인가?

>*준: 『멋진 신세계』의 문명사회를 걸음으로 보면 분명 차이가 있어 보여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처럼 계급이 나뉘어 있고, 옷의 색도 다르고, 맡는 역할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읽다 보면 그것은 다양성이라기보다 체제가 미리 설계해 놓은 구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알파와 베타를 제외한 계급은 보카노프스키 법을 통해

같은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여기에 수면교육과 조건화까지 더해져 각자가 자기 계급에 만족하도록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는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다양성이 풍부한 현실 사회와 다양성이 거의 제거된 문명 사회를 비교했을 때, 과연 다양할수록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다양성이 있어야 행복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원하고,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행복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멋진 신세계』처럼 모두가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만족하도록 길러진다면, 행복이라는 감정도 되게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 행복도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이 곧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르면 그만큼 갈등도 생기고, 비교도 생기고,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다양성이 행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성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인: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복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데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감정의 폭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다양성이 있으면 불편함도 생기지만, 그만큼 사람마다 행복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존의 “불행해질 권리”도 결국은 남들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아갈 권리와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은: 그렇다면 다양성은 행복의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행복 역시 얇고 획일적인 만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멋진 신세계』는 안정과 질서를 위해 다양성을 축소된 사회를 보여 주면서도, 동시에 그 사회의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멋진 신세계에 관한 토론은 꽤 깊게 이루어졌고, 여기서 더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볼 만한 영화나 드라마, 책에 무엇이 있을까요?

4. 『멋진 신세계』를 읽고 떠오른 영화, 드라마, 책 중에서, 이 작품과 비슷하거나 대조된다고 느낀 것이 있었나요?

>*인: 저는 가장 먼저 『1984』가 떠올랐어요. 개인보다 사회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멋진 신세계와 비슷하지만, 통제하는 방식은 거의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1984』는 빅 브라더의 감시 아래에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반면 『멋진 신세계』는 오히려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풀어 놓고, 소비나 쾌락, 소마 같은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984』가 억압과 공포를 통해 움직이는 사회라면, 『멋진 신세계』는 방탕함과 편안함 속에서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에 더 가깝워 보여요. 그래서 둘 다 디스토피아인데도, 『1984』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가 먼저 보이고, 『멋진 신세계』는 통제 자체가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사회라는 점에서 더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빈: 『더 기버』요. 두 작품 다 개인보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더 앞세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은 꽤 다르다고 생각해요. 『멋진 신세계』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완전한 신분제 사회로, 같은 계급 안에서는 비교적 동등해 보일 수 있어도 계급 사이의 차이는 아주 크고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반면 『더 기버』는 어릴 때까지는 모두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공동체가 각자의 모습이나 적성에 따라 역할을 정해 준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더 평등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두 작품 모두 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사회가 정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어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가 태어날 때부터 차이를 강하게 고정해 놓는 사회라면, 『더 기버』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결국 삶의 방향을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의 통제 사회라고 생각해요.

>*은: 저는 영화로는 <아일랜드>가 생각났어요. 그 작품도 인간을 하나의 자원이거나 부품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멋진 신세계』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의 삶 자체보다 체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닮아 있었거든요. 다만 <아일랜드>는 복제인간과 장기이식이라는 목적이 비교적 분명한 반면, 『멋진 신세계』는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차원의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이버전트』도 떠올랐는데, 사람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위협하게 본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다이버전트』는 그 분류 체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저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준: 저는 <설국열차>가 떠올랐어요. 빙하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 열차 안에서도 1등석부터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하위 칸까지 계급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멋진 신세계』의 계급 질서와 닮았다고 느꼈어요. 다만 차이도 분명해요. 『멋진 신세계』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계급에 맞게 조건화되고 세뇌돼서 큰 불만 없이 살아가지만, <설국열차>의 사람들은 원래 우리와 비슷한 현실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지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결국 위쪽 칸으로 올라가려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점이 달랐어요. 또 들은 바로는 열차가 1, 2, 3등석처럼 나뉘어 있을 때는 그 구조가 생존에는 오히려 유리했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존에는 더 불리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설국열차>는 불평등한 질서가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생존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멋진 신세계』와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또 『제노사이드』도요. 이 작품은 신인류나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멋진 신세계』와 연결하게 됐어요. 『멋진 신세계』가 기존 인간을 계급별로 규격화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보여 준다면, 『제노사이드』는 인간의 범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쪽으로 질문을 넓힌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는 인간을 체제에 맞게 길들이는 이야기라면, 『제노사이드』는 새로운 인간이 등장했을 때 기존 인간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묻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어지지만, 문제를 던지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은: 저는 특정 작품 하나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레트로퓨처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미래 사회를 다루지만 감각적으로는 약간 과거적인 분위기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또 블레이드 같은 미래 SF도 떠오르는데, 그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경계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멋진 신세계』는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기보다, 인간인 채로 길들여지고 기능화된다는 점에 더 초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디스토피아 작품이 같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멋진 신세계』는 감시나 폭력보다 쾌락과 안정으로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독특하다 할 수 있어요.

활동 자료

(화이트보드 속 도식화) (단체사진)

행복에 대한 논의를 화이트보드에 도식화해봤고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4.28. 화 9:00-12:00			장소	8관 1층 휴게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당신들의 천국			저자	이청준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연도	1976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왜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없는가 - 『당신들의 천국』으로 묻는 노와 타자를 위한 선의의 한계					
활동 내용 & 방법						
<p>희노애락 중 ‘노’를 다룬 책으로 『당신들의 천국』을 선정했다. ‘희’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노’와 이 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책에 더 깊게 들어가 책 속의 상징성과 작가의 장치와 의도한 바에 대해 토의했다. 제목에 나오는 ‘당신들’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넓혀 나갔다. 토의를 하며 ‘타인을 위한 선의의 한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였고, 더 깊은 사고로 이어가기 위해 개인적 경험 및 생각을 2차 모임에서 나누기로 했다.</p>						
활동 결과						
<p>1. ‘당신들의 천국’은 ‘노’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p> <p>>*준: 저는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노’가 환자들이 표현하는 단순한 분노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적인 정서인 ‘한’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품 속에서 환자들이 보이는 불신과 냉소,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인 것 같아요.</p> <p>>*인: 맞아요. 책에서 특히 작품에서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총동원령이나 강제 노동 같은 요소들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이 구조적으로 억압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분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p> <p>>*은: 저는 초반에 이상욱이 조 원장에게 섬을 구경 시켜주면서 “이 섬 전체가 하나의 한의 덩어리”라고 한 표현이 이 질문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마치 환자 개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p>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노’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억압과 차별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정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서의 ‘노’는 단순히 분출되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억압받고 이용당해 온 경험이 쌓이면서, 누군가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 싶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 아닐까요?

2. 당신들의 천국에서 당신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빈: 저는 ‘당신들’이 기본적으로는 조백헌을 포함한 ‘섬 밖의 사람들’, 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환자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천국은 결국 환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 설계된 거잖아요. 전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환자들은 원장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억압받고 이용당해오면서 누군가의 선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환자들과 외부 사람들을 나누는 인식이 이어져 ‘당신들’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이분적인 입장이 드러나요. 환자와 건강인을 나누는 것은 물론, 환자로서의 자아와 사람으로서의 자아의 대립, 섬의 내부와 바깥 세상의 대비 등 여러 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결국 ‘당신들’은 환자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천국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건 너희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라는 말에는 이미 공동체의 단절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 찾아보니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천국’에서 ‘당신들’은 원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타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빈님과 *인님이 말씀한 것처럼 원장이나 외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원장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당신들’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은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결국 ‘당신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 천국이 결코 모두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이는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의사, 정책가, 봉사자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해볼 주제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도와준다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3. 환자들은 왜 탈출하려 하는가?

>*인: 저는 환자들이 탈출하려는 이유를 소록도라는 공간에 쌓인 불신과 상처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전 원장들의 통치 과정에서 환자들은 보호받는 존재라기보다 관리되고 동원되는 존재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나타나 섬을 바꾸겠다고 해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곧바로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록도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통제와 격리의 기억이 쌓인 공간이었던 거죠.

>*은: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탈출하려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가는 행동이라기보다, 자신들을 계속 묶어 두는 섬의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특히 환자들이 계속 환자로만 취급되는 상황이 중요한데, 작품에서도 환자들이 사실은 병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들은 환자로서의 특수한 처지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보편적인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빈: 그런데 소록도 안에서는 그중에서도 환자라는 조건만 지나치게 강조돼요. 탈출은 단순히 병원이나 섬을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환자로서만 규정하는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죠. 인간은 병명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는데, 소록도 안에서는 그 병명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신해 버리는 것처럼 작동하니까요.

>*준: 그쵸. 환자들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감정과 의지,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섬의 질서 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라기보다, 늘 누군가의 관리와 계획 안에 놓인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탈출은 환자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은: 결국 그들은 환자로서의 처지만을 강요받을수록, 오히려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자각하게 됐어요. 조백헌은 이전 원장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을 바꾸려 했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위하려는 인물로 보였지만 환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조백헌 개인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 자신들이 계속 관리와 계획의 대상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결국 환자들이 탈출하려 한 이유는 더 좋은 원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불리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동상과 천국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4. 동상과 천국의 상징성과 관계는 무엇인가?

>*은: 저는 이 작품이 다른 작품이었다면 조백헌이 자기 동상을 세우려는 욕망을 버리고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좋은 원장으로 남는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야기는 선한 권력자가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상을 세우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를 더 묻고 있어요.

>*준: 그래서 동상과 천국은 처음에는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분리되는 것 같아요. 먼저 동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원장이 자기 업적을 기념하고, 환자들이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전 원장들의 역사까지 생각하면, 동상은 선의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여요. 조백헌이 계속 자신이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인: 그런데 천국은 동상보다 더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동상은 권력자의 이상화 문제라면, 천국은 누가 누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돼요. 조백헌이 자기 동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원장의 위치에서 환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 한다면, 그 천국은 환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삶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타인의 삶을 대신 완성해 주려는 선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빈: 결국 동상과 천국은 연결되면서도 분리된다 할 수 있겠네요. 동상은 원장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위험을 보여주고, 천국은 설령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삶을 위에서 대신 구상하려는 태도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동상을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진정한 천국은 누군가가 위에서 베풀어 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운명을 함께 책임질 때 가능한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조백헌의 귀환과 결말 부분은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까요?

5. 조백헌의 민간인 귀환과 결혼식 장면은 진정한 화해의 시작인가?

>*인: 저는 조백헌이 5년 뒤 민간인으로 돌아온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원장으로 있을 때의 조백헌은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섬을 바꾸려 했지만, 아무리 진심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섬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빈: 맞아요. 그래서 5년 뒤 민간인으로 돌아온 것은 조백헌이 이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섬에 들어가려는 시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완전한 화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백헌이 민간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환자들의 오래된 불신이나 소록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준: 저는 그래서 이 결말이 확실한 답을 주는 장면이라기보다,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진 장면같았어요. 조백헌이 정말 환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상욱의 희미한 미소도 작품의 결말을 감동이나 비웃음 중 하나로 닫지 않고, 가능성과 불안을 함께 남기는 장치처럼 보여요.

>*은: 그리고 결혼식 장면도 그 모호한 결말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윤해원은 병을 앓았던 사람이고 서미연은 걸으로는 한센병과 무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미연도 한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병은 없는 미감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한센병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병을 앓았던 사람과 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결합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록도와 한센병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결혼식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인: 결혼식 이후의 삶이 곧바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두 사람의 결혼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소록도에 쌓인 차별과 불신이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서미연이 숨겨 왔던 미감아로서의 정체성도 이후의 삶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완성된 화해라기보다, 불안하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에 가까워요. 조백헌의 민간인 귀환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의 완성을 선언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공동체가 가능할지 묻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활동 자료

(단체사진) (이미지)

학생생활관 8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보았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5.01. 금 16:00-19:00			장소	8관 1층 휴게실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당신들의 천국			저자	이청준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출판연도	1976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당신들의 천국』으로 묻는 타자성과 시혜성, 그리고 해결의 갈피					
활동 내용 & 방법						
<p>지난 시간에 이어 '노'를 다룬 책인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 토의했다. 저번 활동에서 '노'라는 감정과 작중 장치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현실에 한 걸음 다가가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타자성과 시혜성을 반성하고, 앞서 설명한 분노를 올바르게 해소하는 갈피에 대해 토의해 보았다. 먼저 이전 시간에 제시한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닌 '진정한 천국'과 관련하여 그것을 이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각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환자와 의사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의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했다.</p>						
활동 결과						
<p>1. 진정한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p> <p>>*은: 앞 토론 시간에서는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원장과 섬사람들 내지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동의 천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살펴봤어요. 특히 조 원장이 만들고자 했던 '환자들의 천국'이란, 건강한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만듦으로써 결국 원장, 즉 '당신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p> <p>>*준: 책에서는 그 답을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수락하는 감정 말이에요. 진정한 천국은 지배적-피지배적인 관계에서 성립될 수 없는 자생적 상태니까요.</p> <p>>*빈: 그렇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같은 집단 안에서도 완전히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로 다른 집단-특히 지배층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타인들 속에 녹아든다는 건 약간은 뜯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조 원장이 결말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섬의 주민이 된 게 다소 비현실적인 것처럼 말이에요.</p>						

>*인: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가도 열린 결말을 냈을 거라 느꼈어요. 사랑으로 진정한 천국을 만든다는 건 옳은 말이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책에 나온 조 원장처럼 한순간에 자신의 지위를 버리는 건, 인물 성격이 다소 상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라고 생각해요.

>*준: 우리는 작품 바깥인 작가의 입장에 서서, 그가 조 원장의 낙토 계획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본인의 시각도 지나치지 않고 회의했던 작가의 태도처럼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정한 천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끝없는 반추와 반성을 통해 사랑을 일구어나간다면 언젠가는 낙토도 비현실적이지만은 않게 되지 않을까요?

2. 환자로서의 자아와 사람으로서의 자아는 통합될 수 있는가?

>*인: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이분법적인 구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섬 안과 섬 밖, 환자와 건강인, 보호와 격리, 치료와 통제처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껴진 건 환자로서의 자아와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계속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소록도 사람들은 분명 한센병 환자이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일하고, 분노하고, 자기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그들을 먼저 ‘사람’으로 보기보다 ‘환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환자로서의 자아와 사람으로서의 자아는 결국 통합될 수 있을까요?

>*은: 저는 작품 안에서는 완전한 통합이 어렵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소록도 사람들에게 병은 질병의 상태를 넘어 사회적 신분처럼 작동하잖아요. 한센병이라는 병명 하나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뒤로 밀리고, 먼저 ‘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환자로서의 자아가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압도해버리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빈: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병명이란 한 사람을 설명하는 언어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가두는 언어일까요? 의학적으로 병명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병명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준: 저는 그래도 병명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아야 치료 방향도 잡을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명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한센병 환자’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정해버리는 말처럼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병명이 치료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빈: 네, 저도 이게 그냥 ‘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사회가 어떤 사람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이 너무 쉽게 지워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환자가기 전에 한 사람인데, 사회는 자꾸 그 순서를 바꿔버리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병을 가진 존재’로 보고 나서 그다음에야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다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병 자체보다, 병을 이유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좁혀버리는 사회의 시선을 더 비판한다고 느꼈어요.

>*인: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환자로 먼저 인식했을까요, 사람으로 먼저 인식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환자들이 스스로를 환자만으로 생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사회가 너무 오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시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빈: 맞아요. 낙인은 외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부화되잖아요. 처음에는 사회가 그 사람을 환자라고

규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나는 환자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앞서 *준 님이 언급한 대로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회가 차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별이 개인의 자기 인식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요.

>*준: 저는 그래서 소록도가 단순한 병원이나 시설이라기보다, 정체성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섬 안에 있는 순간 그 사람은 계속 환자로 불리잖아요. 밖으로 나가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낙인과 마주하니까 완전히 도망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섬 안에서는 환자라서 통제받고, 섬 밖에서는 환자라서 배척받는 거죠.

>*빈: 그럼 사회가 붙인 이름이 개인의 자기 인식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못한다고 말해온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로서의 자아와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통합되려면 단순히 개인이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가 그 사람을 부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서미연과 윤해원의 결혼소재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 결혼은 환자와 건강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처럼 보여 통합의 가능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서미연이 미감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결혼한다는 점에서, 이 결합이 완전히 평등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을 숨겨야만 가능해지는 결합이라면, 그건 이미 사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인: 저도 그 결혼이 희망적이면서도 불완전하다고 봤어요.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이 숨겨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 조건부 통합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혹은 환자와 관련된 흔적을 감춘다면,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이니까요.

>*준: 그럼 이 결혼을 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환자로서의 자아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는 길은 가능한가? 미감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때는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숨겨야만 가능하다면 아직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통합이 가능성으로 제시되지만,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서요.

>*은: 맞아요, 사랑이라는 가장 사적인 관계 안에서도 병과 낙인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청준 작가는 '왜 사회는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기 위해 그 사람의 환자성을 지우려 하는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 저는 여기서 『잠수종과 나비』가 떠올랐어요. 그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록트인 증후군 때문에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과 기억과 상상력은 계속 살아 있잖아요. 몸은 잠수종처럼 갇혀 있지만, 내면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구조예요. 이걸 『당신들의 천국』과 연결하면, 환자의 몸과 그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신체가 제한되어도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잠수종과 나비』에서는 몸의 제한이 곧 인간 전체의 제한은 아니라는 점이 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사회가 환자의 몸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사랑, 자유, 권리, 미래까지 같이 제한해버리죠.

>*빈: 저는 두 작품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봐요. 『잠수종과 나비』의 잠수종이 신체적 제한이라면, 『당신들의 천국』의 잠수종은 사회적 낙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쪽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고통이고, 다른 한쪽은 몸의 질병을 이유로 사회가 그 사람을 가두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에서 환자에게 병명은 사회가 씌운 잠수종처럼 보였어요.

3. 병든 몸과 원래의 나는 분리될 수 있는가?

>*준: 의학적으로는 병이 몸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병이 사람 전체에 덧씌워지는 것 같아요. 몸의 병이 곧 삶의 병으로, 관계의 병으로, 권리의 병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병을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병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인: 미래 의료인 입장에서 이 질문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네요. 의료인은 환자의 몸을 치료하면서도 그 사람의 나비 같은 자아를 볼 수 있을까요? 환자의 검사 결과, 진단명, 예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까지 보지 못하면 결국 환자를 병명으로만 보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빈: 저는 그래서 병명은 의학적 판독이지만, 낙인은 사회적 판결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은 병명을 통해 상태를 설명하지만, 사회는 그 병명을 가지고 사람의 가능성을 판결해버리잖아요. ‘당신은 환자니까 여기까지’, ‘당신은 위험하니까 떨어져 있어야 해’, ‘당신은 식이조절해야지, 우리가 돌봐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순간 병명은 치료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굴레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에서는 이 작품이 오늘날 의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4. 이 작품은 미래 의사인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가?

>*빈: 우리가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천국』이 더 문학작품으로만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백헌은 원장이자 의료인이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위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선의는 지속적으로 장로회에게, 보건과장에게, 어쩌면 환자들에게도 의심받고, 때로는 권력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미래 의사인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환자를 위한다’는 말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물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 말이 너무 쉽게 환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최선이니까”, “환자를 위해서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맞으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의 삶 전체가 의사의 판단 아래 놓일 수 있어요. 조백헌도 악의가 있어서 의심받았던 된 게 아니라, 자신이 환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학적 최선과 환자가 원하는 삶이 다를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통증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조백헌이 생각한 천국과 환자들이 원하는 삶이 달랐던 것처럼, 의사가 생각하는 최선과 환자가 원하는 최선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좋은 의사는 환자를 설득해서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 환자의 삶의 맥락까지 듣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봐요.

>*인: 저는 이 질문이 다시 조백헌을 단순히 비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앞선 토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백헌의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조백헌은 환자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섬 안에서 삶의 긍지를 갖고 스스로 공동체를 꾸려가도록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선의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빈: 맞아요. 특히 이상욱이 탈출할 당시 썼지만 그때 원장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문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조백헌의 선의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 스스로 자기 울타리를 높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상욱은 조백헌이 철조망을 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높여가게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원장님 이전의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원장님께서도 이 섬을 오신 후로 변함없는 주문을 한 가지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섬 원생들 모두를 보다 더 환자다운 환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원장님 이전의 누구보다도 원장님 자신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룩해내셨습니다. 원생들은 참으로 환자다운 환자가 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섬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원장님께선 원생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섬을 꾸미게 하고 그곳에 남아 사는 데 불만이 없을 만큼 각별한 긍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철조망을 둘러쳐 놓고 덮어놓고 겁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들 스스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높여 가게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생들은 환자다운 환자가 되어 갈수록, 그들의 천국이 자랑스러워지면 자랑스러워질수록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울타리보다 더 높고 튼튼한 울타리는 없을 것입니다.” (p.462-463)

>*빈: 이 인용을 보면 조백헌의 선의가 왜 곧바로 환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아요. 조백헌은 환자들을 강제로 가두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섬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욱은 바로 그 자부심이 새로운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눈에 보이는 철조망은 폭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은 금지, 안정, 공동체, 천국 같은 좋은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 그래서 더 고민이 됐어요. 조백헌이 한 일이 겉으로 보기에 분명 좋은 일이잖아요. 환자들이 자기 손으로 섬을 꾸미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환자다운 환자’를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행위가 상대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자리 안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빈: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선택지가 열려 있는가’라고 봐요. 환자가 섬 안에서 살고 싶다면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나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섬 안의 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무도 그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금지라기보다 내면화된 순응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은: 그 말이 의료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병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만들고, 치료 체계에 잘 따르게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자가 자기 삶을 질문하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 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는 환자니까 이 정도가 내 삶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 환자를 위한 선의는 환자를 더 ‘환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 맞아요. 그래서 조백헌의 사례가 의사에게 주는 경고는 단순히 ‘환자에게 잘해줘야 한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려는 태도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까워요.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상대를 더 조용하고, 더 순응적이고, 더 ‘환자다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자신이 하는 선의의 방향을 의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빈: 정리하면, 조백헌의 선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선의가 환자들을 섬 안에 더 잘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도 환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환자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계속 고민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준: 저는 이 부분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게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사회적 약자를 배려나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순간에는 갑자기 불편해하잖아요. 이게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되게 선명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빈: 제가 꼭 2차 토론 때 꼭 다루고 싶었던 문장이 있는데, ‘동정의 대상일 때는 너그럽지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순간 너무도 인색해진다’는 말이 이 작품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을 복지나 배려의 대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대해요. “도와줘야지”, “지원해야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우리와 같은 권리를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이나 공간이나 기회를 함께 나누자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확 바뀌잖아요. 그때부터는 “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왜 내 몫을 나눠야 하나”는 말이 나와요.

>*인: 그럼 왜 사람들은 약자가 도움받을 때보다 권리를 요구할 때 더 불편해할까요? 저는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주는 감정이라서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리는 수평적인 언어잖아요.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도움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고마워해야 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아요. 자기 몫을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은: 또 ‘동정은 쉽지만 권리 인정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동정은 내 것을 실제로 많이 내어놓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쉽고, 소액을 기부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공간, 시간, 예산, 기회 같은 실제 자원을 다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몫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거죠.

>*준: 이게 작품 속 간척지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간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환자들의 노동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간척이 완료되고 나니까 바로 그 땅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누릴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이때 환자들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몫을 요구하는 주체가 돼요. 그러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 사회는 약자의 고통에는 동정적일 수 있지만, 약자의 권리 요구에는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자의 몫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읽었어요. 환자들이 고통받을 때는 불쌍하게 볼 수 있지만, 환자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을 경쟁자로 보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복지 예산, 공공의료, 노인 돌봄처럼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내 세금, 내 지역, 내 시간과 연결되는 순간 반응이 달라지니까요.

>*준: 장애인 이동권 문제만 봐도, 장애인을 돕자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해요. 그런데 장애인이 실제로 사회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눠 쓰자고 요구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굉장히 인색해져요. “권리는 인정하지만 내 출근길은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사실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권리는 원래 누군가의 불편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주어지는 장식이 아니니까요.

>*인: 그러면 결국 장애인 이동권, 공공의료, 노인 돌봄 문제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하게 하네요. 당사자의 목소리 없이 좋은 제도를 설계한다고 말하거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실제 권리 요구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현대판 『당신들의 천국』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우리 삶에서 조백헌과 비슷한 위치에 서는 경험?

>*빈: 그러면 우리 삶에서 조백헌과 비슷한 위치에 서는 경험은 언제 있을까요? 꼭 의사로서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후배, 장애인, 노인, 환자, 아이를 대할 때 우리는 쉽게 조백헌의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좋은 방향을 안다고 믿고, 상대를 위해 대신 선택해주려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은: 저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내 기준의 해결책을 밀어붙이면, 그것도 작은 형태의 조백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진로, 생활, 인간관계까지 결정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진심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은 거대한 권력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선의의 위험성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준: 의료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인 환자에게 치료 방침을 설명할 때, 보호자와만 이야기하고 환자 본인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삶이 자기 없이 결정되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거죠.

>*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환자를 위한다는 말이 환자를 침묵시키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결국 경청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자를 위한다면 먼저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야 하고, 환자의 분노나 거부감도 비합리적이라고 밀어내기 전에 그 이유를 들어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의가 진짜 선의가 되려면 상대의 선택권을 넓혀야지, 상대를 더 조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준: 저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 공감, 그리고 자기 권력에 대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지식만 있으면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공감이 없으면 환자의 삶을 볼 수 없고, 자기 권력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선의가 권력이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인: 정리하면, 『당신들의 천국』은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작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작품 같아요. 동정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상대를 계속 낮은 자리에 두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말하고 결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6. 이 작품의 의의는?

>*빈: 저는 대립과 차별로 인한 분노, 그리고 지배층의 불가피한 시혜성을 회피하지 않고 잘 드러냈다고 생각해서 특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 다른 작품에서는, 조백헌 대령이 자기 동상을 세우려 하지 않는 데에 이상욱이 감동하고 섬이 행복한 천국을 꾸리는 데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엔딩은 피지배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나이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중에도 나왔듯 아무리 섬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원장은 섬사람과 같은 운명을 살 수 없고, 따라서 원장이 꾸미고자 한 섬사람들의 낙토가 원장과 섬사람 공동의 천국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 원장도 원장이라는 권력을 버리고 환자들 사이에 섞일 수 있는 민간인의 위치로 복귀한 것이고요.

>*빈: 네. 방금 이야기했듯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특권을 누리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익 없이 환자들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해도, 입장의 동일함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오만한 시혜자로서의 동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반성하고 짚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 실제로 이 작품은 1970년대 독재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집필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작중 배경도 5.16 군사정변 이후 조백현 대령이 부임하며 시작되고, 이 밖에도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역사적, 정치적 의의가 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동시에 이 책의 비판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물들이 관념적인 도구로써 사용되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조백현 원장의 아내는 작품 말미에서 함께 섬에 들어왔다가 질려 떠났다는 한 줄로만 서술되거나, 윤해원과 서미연의 결혼은 특별한 감정선 없이 '건강인과 환자의 결혼'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서둘러 마무리된 감이 있어요. 이렇듯 작품의 알레고리적 특성 때문에 인물들이 현실적이기보다 관념적으로 비칠 수 있는 게 일종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나누고 공유한 열몇 개의 질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느꼈어요. 말씀하신 환자들의 입장이나 지배층의 입장을 서로 생각해 보면서 고찰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시다.

활동 자료

(단체사진)

학생생활관 8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5.05. 금 17:00-22:00		장소	도서관 4층 C square Sienna Orange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저자	프랑수아즈 사강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195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타성(惰性)을 깨우는 내면의 슬픔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속 슬픔의 층위와 주제적 회복					
활동 내용 & 방법						
<p>희노애락 중 ‘애(哀)’를 다룬 책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선정하여, 작품의 본질적인 정서와 서사적 장치를 중심으로 첫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애(哀)’의 정서에 주목하여, 복합적인 인물들의 심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비극성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슬픔을 단순히 감내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아를 회복하는 등 슬픔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나누었다. 더불어 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문구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권태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폴의 자아를 일깨우는 상징적 매개체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개인의 취향과 삶의 열정을 되찾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작중 등장한 관계를 바탕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연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관계의 의미를 탐구했다. 각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슬픔의 층위를 섬세하게 파헤치고, 텍스트 속에 숨겨진 시대적 배경과 상징을 연결 짓는 과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고통과 그 이면의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본 시간이었다.</p>						
활동 결과						
<p>1.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속 슬픔은 어떻게 등장하나?</p> <p>>*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슬픔을 강하게 느꼈어요. 폴은 시몽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끝내 그를 붙잡지 못하잖아요. 동시에 로제의 경우에는 그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고요.</p> <p>>*인: 시몽의 슬픔도 그에 못지않죠. 시몽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폴을 열렬히 사랑하지만, 정작 폴의 시선은 늘 로제라는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잖아요. 상대를 온전히 얻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일방향적인 열정이 결국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과정이 안타까웠어요.</p>						

>*빈: 맞아요. 정확히 풀은 시몽에게 “나의 희생양. 나의 사랑스러운 희생양. 나의 귀여운 시몽!”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불가피하게 상처입힐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느끼죠. 이렇게 사랑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기쁨만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 필연적으로 슬픔이나 아픔과 동반되는 것 같아요.

>*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어도 역설적으로 여전히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독함은 슬픔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요. 것처럼 외로운 정서로 인해, 이 책이 로맨스 소설임에도 슬프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나 싶어요.

2. 그러한 슬픔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일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과 뒤섞여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풀의 슬픔은 사랑하고 싶다는, 동시에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와 불안,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권태와 무력함이 얽혀 있다고 읽혔어요.

>*빈: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슬픔은 특히나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쉽게 드러나고 분출하곤 하는 화나 기쁨보다 좀 잠재되어 있고 기저에 깔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풀이 로제의 외도를 묵인하며 견디는 모습의 기저에는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한 슬픔이 깔려 있었죠.

>*인: 그런 점에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이 더 어렵다고 느꼈어요. 차라리 슬픔 그 하나의 감정만 존재한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되는데, 사랑이나 익숙함 등과 교묘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풀의 경우에는 정주하는 삶 속에서도 무력감 섞인 슬픔을 느끼지만, 시몽을 통해 새로운 설렘을 마주할 때도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실감하며 또 다른 결의 슬픔을 느꼈어요.

>*은: 저는 그런 복합적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연애나 결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내 행복의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그건 관계의 결함이라기보다 자기 존재의 고립감 때문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나 관습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홀로 서는 독립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빈: 그 점이 풀에게 가장 결핍되었던 부분 같아요. 실제로 풀은 작중에서 시몽과 함께 있을 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위축되곤 하잖아요. 슬픔처럼 복합적이고 뿌리 깊은 감정을 극복하려면, 타인의 평가라는 외부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은: 우선 작중에서 브람스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은 삶의 흥미를 잃고 타성에 젖어 살고 있던 풀에게 큰 전환점이 되죠. 실제로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의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화제들, 즉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인: 맞아요. 자신이 정말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해, 결국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에 익숙해진 것뿐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에 매몰되어 있던 풀의 자아를 시몽이 흔들며 깨운 셈이에요.

>*준: 질문이 던져진 전후 상황도 중요하게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몽이 풀을 브람스 연주회에 초대할 직후, 그는 교외에서 로제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해요. 말하자면 이 질문은 시몽이 풀에게 던지는 데이트 신청인 동시에, 풀이 자신의 내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시점과, 로제가 자신의 비밀을 발각한 시몽을 의식하게 된

시점이 겹치는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해요.

>*빈: '브람스'라는 음악가를 굳이 선택한 것도 흥미로워요.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브람스는 스승의 아내였던 클라라 슈만을 평생 짝사랑하며 절제된 삶을 살았잖아요. 우연인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폴과 시몽의 나이 차이가 브람스와 클라라처럼 정확히 14살이기도 하고, 클라라의 남편인 로베르트 슈만이 로제처럼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공통점들은 폴과 시몽, 로제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봤어요.

>*은: 브람스가 당시 프랑스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곡가가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볼 만해요. 시몽이 다른 인기 있고 유명한 음악가가 아닌 브람스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 흔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의 고독하고 모호한 이면을 다룰 것이라는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준: 결국 질문 속 '브람스'는 폴에게 사랑의 열정을 되찾아주는 촉매인 동시에, 시몽이라는 새로운 이성의 존재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 신경 쓰고 좋아하게 된 '브람스'가 있으신가요?

>*인: 저는 좋아하는 이성은 아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취향이 저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클래식 중에서도 낭만주의 음악만 즐겨 들곤 했는데, 인상주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친구를 따라 드뷔시나 라벨을 듣다 보니 어느새 그 모호함이 제 취향의 일부가 되었어요.

>*빈: 저도 비슷해요. 야구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매일 야구 중계를 틀어놓던 친구 덕분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친구와 대화하고 싶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팀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세계까지 사랑하게 만든다는 걸 실감해요.

>*준: 저는 중학생 때 관심이 있던 친구가 NC 다이노스를 응원한다는 이유로 그 팀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NC의 공룡 로고가 귀엽다고 말한 뒤부터 저도 모르게 경기 결과와 선수 기록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확실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연관된 요소들을 나도 모르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4. 연인 사이의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빈: 이 책의 배경인 1950년대 프랑스와 2026년 현재의 시대상을 비교해 볼까요?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만 봐도 나이 차이에 대한 용인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최근 한 프로그램의 연상연하 특집에서 탄생한 무진·본희 커플은 남자가 28살, 여자가 40살로 무려 12살 띠동갑인데도 방송 이후까지 잘 만나고 있잖아요. 폴과 시몽의 14살 차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지금은 이런 관계가 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1950년대에는 여자가 14살이나 더 많은 연애가 사회적으로 전혀 용납되지 않는 훨씬 보수적인 분위기였을 거예요.

>*준: 맞아요. 작품 속에서도 폴이 파티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폴이 14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스스로의 큰 한계로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인: 반면에 시몽은 이런 사회적 한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둘이 같이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대놓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시몽은 그런 따가운 시선 앞에서 폴에게 저런 말을 중요하지 않다고 안심시켜요. 1950년대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시몽의 이런 직진이 훨씬 더 파격적이고 패기 넘치는 태도였다고 볼 수 있죠.

>*은: 그렇다면 2026년을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나이 차이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현재 본인의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20살과 24살은 학생과 어른처럼 체감되는 차이가 엄청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그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니 허용 범위도 늘어나겠죠. 그래도 저마다의 마지노선은 있어요. 당장 6살 터울인 제 친언니만 봐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어른처럼 느껴지는데, 14살 차이면 연애라기보다 거의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준: 저는 개인적으로 위아래 4살 이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학교를 다닌 시기가 겹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같은 세대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대의 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지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인: 저도 비슷하게 위아래로 6살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최소한의 대화 수준이 맞고 성격이 통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시몽과 폴도 단순한 나이 차이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성숙도의 차이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게 아닐까요. 폴이 나이 차이에서 오는 타인의 시선에 그토록 큰 부담을 느꼈던 것도 결국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소설 속 인물들이 왜 이토록 끊임없이 연애와 관계 자체에 얽매이는지, 이것이 과연 순수한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압박인지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 볼까요?

5. 연애와 관계에 대한 집착,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압박인가?

>*인: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물들이 왜 이토록 끊임없이 연애에 집착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면 1950년대 당시에는 결혼을 하거나 오래 사귄 파트너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어른으로 취급받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명절이나 모임에서 어른들을 뵈면 늘 연애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게 되니까요.

>*빈: 맞아요. 당장 우리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대학에 가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잖아요. 마치 스무 살이 넘고 대학생이 되면 연애를 하는 것이 당연한 필수 조건이자 공식인 것처럼 은연중에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소설 속 인물들 역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혼자 있는 상태를 온전히 견디지 못하도록 학습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은: *인님 말처럼 혼자 지내면 어딘가 결핍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서구권의 인식만 봐도, 파트너가 없으면 적어도 반려견이라도 길러야 타인이나 생명체와 교감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연애나 관계 맺기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 잣대에 맞추기 위해 내재화된 가치관처럼 작용하는 거죠.

>*준: 이런 관계성에 대해 최근 지인과 대화하며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입시를 준비하며 고립감을 느끼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실존을 확인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것 같다고 본인의 생각을 전하더라고요. 즉, 타인과의 관계는 세상 속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확인받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뜻이죠.

>*인: 그 통찰을 듣고 나니 소설 속 인물들이 왜 그렇게 관계에 얽매이는지 확 와닿네요. 폴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존재이며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이 보여주는 맹목적인 관계 지향성은 순수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선과 고독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실존적 몸부림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연애를 숙제처럼 여기고 남을 통해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게 사랑이라면, 그걸 그저 외로움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압박이나 불안감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나 불안을 다

걸어낸 진짜 사랑의 실체가 뭔지, 로제와 시몽의 사랑을 비교하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자료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5.07. 목 18:00-21:00			장소	도서관 4층 C square Sienna Orange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저자	프랑수아즈 사강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1959	번역자	*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사랑받아도 여전히 외로운 고독의 좌표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 묻는 '애(哀)'와 실존적 선택					
활동 내용 & 방법						
<p>희노애락 중 '애(哀)'를 다룬 책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선정하고, 지난 활동에서 다룬 도서 선정 배경과 '브람스'의 상징성, 나이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결혼에 대한 압박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층 확장된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폴의 선택지인 로제와 시몽을 통해 '안정적인 권태'와 '불안한 열정' 중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가까운지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로제의 외도와 소유욕을 통해 사랑의 순수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물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사랑이 인간의 실존과 고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더불어 책 속 인물들의 관계를 『나는 솔로』나 『환승연애』 같은 최근 연애 프로그램 포맷에 비추어 생각해보았고 각자가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상황 분석을 덧붙여 답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p>						
활동 결과						
<p>1. 로제와 시몽 중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p> <p>>*준: 저는 결국 로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 폴은 시몽과 만남을 가지면서도 계속 로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폴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폴이 시몽에게 흔들린 이유도 로제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시몽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폴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폴은 시몽이 매일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에 화를 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랑은 순간의 설렘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함께 견디는 관계이기도 하나니까요. 아마 폴과 로제는 이미 그런 시간들을 오래 겪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폴은 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p> <p>>*빈: 저는 *준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물론 폴이 끝까지 로제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p>						

이 건강하거나 충분한 사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폴은 로제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불안해하잖아요. 로제는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려고만 했고, 폴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반면 시몽은 미숙하고 감정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폴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랑에서 그런 확신과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폴이 시몽과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는 점도 중요했다고 봐요.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로제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폴을 가장 외롭게 만든 사람도 로제였다는 점에서 저는 시몽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사랑에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인: 저는 이 작품이 사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드는가”를 묻는다고 느껴요. 시몽은 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했고, 폴 역시 시몽 곁에서는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반면 로제와의 관계에서는 폴이 계속 불안해하고, 기다리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설렘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관계라면 저는 시몽 쪽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몽의 사랑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몽은 폴을 굉장히 순수하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폴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환상처럼 바라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로제 같은 사람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질문은 “안정적인 사랑과 강렬한 사랑 중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2. 로제의 사랑과 시몽의 사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빈: 저는 로제와 시몽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몽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깊게 향하는 사랑이고, 로제의 사랑은 자기 삶 전체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시몽에게 폴은 삶의 중심이지만, 로제에게 사랑은 삶의 일부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시몽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지만, 로제는 끝까지 자기 자유와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준: 맞아요. 시몽은 사랑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 같았어요. 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대를 위해 자기 감정 전체를 내어주는 방식이잖아요. 반면 로제는 사랑을 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요. 그래서 폴 입장에서는 로제가 더 성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끝없이 불안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 저는 시몽의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려는 사랑’에 가깝고, 로제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머물지는 않는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시몽은 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지만, 로제는 사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시몽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하지만 쉽게 상처받고, 로제의 사랑은 여유롭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은: 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시간의 감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몽의 사랑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고, 로제의 사랑은 오랜 시간 반복된 관계 속에서 익숙함과 권태까지 함께 안고 가는 사랑 같았어요. 그래서 시몽은 사랑을 이상처럼 바라보지만, 로제는 사랑이 결국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3. 그렇다면 로제는 폴을 사랑하긴 했을까?

>*준: 저는 로제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여전히 폴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작품을 보면 로제는 결국 계속 폴에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폴을 다른 여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로제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다른 여자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창녀’ 같은 표현까지 쓰는데, 시몽이 나타나고 폴을 정말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자 갑자기 그 여자들의 몸이나 말이 천박하다고 표현해요. 저는 그 변화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밤에 여자를 만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즐기던 인물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 폴이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로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폴만큼은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빈: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물론 로제가 폴을 특별하게 생각한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꼭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로제가 시몽 때문에 폴을 빼앗길 것 같아지자 뒤늦게 불안해진 거라고 느꼈어요. 원래 자기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로제의 감정 안에는 사랑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강한 소유욕도 섞여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로제는 끝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은 크게 바꾸지 않으려 하잖아요. 만약 정말 상대를 위해 책임지려는 사랑이었다면 폴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더 일찍 이해하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인: 저는 두 사람 의견이 둘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제가 폴을 사랑한 건 맞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로제는 폴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어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소유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로제 안에서는 그 두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완전히 순수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은: 저는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폴은 다시 로제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결말을 보면 로제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고,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암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로제는 정말 폴을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로제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로제가 끝까지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폴과의 관계 역시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 로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준: 저는 결말에서 로제가 다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로제는 결국 폴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폴을 다시 선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히 달라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작품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빈: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바람의 대상이 메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지는 이전부터 로제 주변에 있던 인물이고, 로제 역시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로제가 다시 예전의 관계와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폴을 선택했다라도 로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인: 저는 오히려 꼭 메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다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핵심은 로제가 특정 인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관계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메지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로제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정착하기 어려운 인물처럼 보였어요.

>*은: 그런데 저는 마지막 장면을 꼭 바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제가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독자가 이미 로제를 의심하게 된 상태라 작은 행동도 불신하게 되는 거지, 작품이 명확하게 다시 의도를 했다고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애매한 결말 때문에 독자들도 끝까지 로제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일부러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사랑에서 신뢰란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다시 질문했다고 느꼈어요.

5. 마지막에 폴이 로제를 선택하면서 시몽이 떠나는데, 과연 시몽은 어떻게 될까?

>*빈: 저는 읽으면서 약간 흥미로운 상상을 했던 게 있었어요. p.15에서 로제가 시몽의 어머니인 반 덴 베시를 언급하잖아요, 결혼 전에 잠시 만났던 여자라고. 그래서 순간 ‘혹시 시몽이 로제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진짜 제 개인적인 망상에 가까운 해석이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시몽이 로제를 계속 의식하고 폴을 아프게 하는 로제에게서 빼앗아 오고 싶다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또 폴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듯 행동하는 것도 약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읽히지 않나 싶었어요. 게다가 시몽 자체가 원래도 친구 어머니의 친구에게, 즉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중년 남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성향을 장난스럽게 ‘오지콤(おじコン)’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일본어 ‘오지상(아저씨)+콤플렉스(complex)’의 합성어인데,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 보호자적이거나 성숙한 이미지에 끌리는 경우를 말하는 표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대로 연상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우는 ‘오바콤(오바상+콤플렉스)’처럼 변형해서 농담처럼 쓰기도 하고요. 시몽도 원래 친구 어머니의 친구인 폴에게 자연스럽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몽의 그런 연상 취향자체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나이차이를 고려해봤을 때 반 덴 베시가 현재 60이고, 로제는 정확하게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40대 초중반이라 하면 시몽과 폴의 나이 차만큼 날 것 같은데요? 와, 오바콤의 유전을 의도한건가 싶었습니다. 너무 흥미롭게 읽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준: 저도 정말 조마조마해하면서 읽었어요. 심지어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혹시 언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궁금해하며 읽었던 것 같아요. *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몽에게 오바콤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시몽은 단순히 폴이라는 사람 자체만 사랑한다기보다, 자기 안의 어떤 이상이나 환상을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빈: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몽이 결국 크게 상처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은 폴에게 거의 인생을 다 걸 정도로 직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폴이 끝내 로제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시몽은 너무 뜨겁고 직선적인 사람인데, 폴은 현실과 시선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이니까요. 안정형 옆에 있으면 불안형이던 사람도 안정형 인간이 되어갈 순 있지만, 내일모레 마흔인 폴이 갑자기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만큼 바뀔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은: 저는 한편으로 시몽 같은 사람이 의외로 더 빨리 털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감정 자체는 굉장히 뜨겁지만 에너지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아파하고 나서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 저는 오히려 폴이 더 오래 후회할 것 같았어요. 시몽은 상처는 받아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폴은 계속 “그때 내가 붙잡았으면 어땠을까”를 곱씹으며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빈: 맞아요. 시몽은 상처를 받아도 감정을 향해 계속 직진하는 사람이고, 폴은 사랑을 하면서도 끝내 현실과 과거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단순히 돌싱과 싱글의 연애 이야기라기보다, 결국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현재의 감정으로 밀고 나가고, 누군가는 사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조건과 불안을 함께 계산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각 인물들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등장인물마다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꽤 달랐던 것 같은데,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6. 남녀 간의 사랑에서 사랑의 본질, 즉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빈: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과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설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정도 깊어질 수 있고 서로를 정말 아낄 수는 있는데, 사랑은 거기에 뭔가 긴장감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폴과 로제도 파티에서 춤을 추다가 손 한 번 스쳤는데 폴이 굉장히 떨려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작은 행동에도 의미 부여하게 되고, 연락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감정이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녀 간의 사랑에는 결국 본능적인 끌림과 설렘이 핵심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준: 저도 그 말 공감했어요. 사실 사랑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정처럼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결국 번식과 생존을 위해 설계된 존재잖아요.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나오듯이 인간의 감정이나 애착도 결국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완전히 순수한 감정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생물학적 본능 위에 세워진 감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랑 초기에 느끼는 강렬한 설렘은 실제로도 호르몬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상대방에게 집착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계속 생각나고, 괜히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사랑 초반에는 사람이 약간 이성을 잃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강렬한 설렘은 사실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6개월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중심의 흥분 상태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같은 애착 호르몬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오히려 안정감과 애착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저는 꼭 성적인 끌림이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감정 자체가 사랑일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랑은 플라토닉한 관계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빈: 그런데 또 저는 설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느꼈어요. 너무 반복되는 일상에 설렘이 묻히면 묻히게 되는 거지, 설렘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래 만난 커플들도 특별한 날 서로 예쁘게 꾸미고 만나면 처음 연애하던 시절 같은 감정을 다시 느낀다고 하잖아요. 저는 설렘이 줄어든다기보다 일상 속에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애에서 설렘을 빼면 결국 우정과 굉장히 비슷해진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사실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들은 정말 편하고 믿음직스럽지만, 그렇다고 손이 스쳤다고 떨리거나 괜히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잖아요.

>*준: 저는 그 지점에서 폴과 로제 관계가 떠올랐어요. 둘은 오래된 익숙함과 애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거기에 사랑의 설렘이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6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설렘 시기는 다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폴과 시몽 사이에는 굉장히 강한 설렘과 긴장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랑에서 안정과 설렘 중 폴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메인인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빈: 저는 폴이 로제의 손이 스치기만 한 상황에도 설레하는 걸 보고 아직 사랑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다고 해도 권태를 이겨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 함께했다고 생기는 책임감만으로 유지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준: 그런데 저는 꼭 설렘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설레는 감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그게 현재의 사랑인지 아니면 과거의 추억과 애착에서 오는 감정인지는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폴이 로제에게 느낀 감정도 완전히 새로운 설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함께해 온 관계에서 오는 익숙함과 미련이 섞여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폴이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 같고요.

>*인: 맞아요. 실제로도 오래된 관계에서는 설렘과 안정감이 완전히 분리된다기보다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다르니까 결국 선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긴장감과 두근거림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누군가는 육체적 끌림보다 정서적인 교감과 존중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형태가 꼭 하나로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 저는 사랑이 결국 인간의 결핍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 자기 안의 빈 부분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감정 같기도 했어요.

>*빈: 그래서 사랑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라고 느끼는 걸까요. 사랑을 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고, 동시에 용감해지기도 하잖아요. 이성을 잃을 만큼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 마냥 행복한 상태라기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깊게 영향을 받는 경험 자체인 것 같네요.

>*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순한 삼각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얼마나 흔들리고 모순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같았어요. 설렘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고, 안정만으로는 살아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그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죠.

>*빈: 맞아요. 결국 사랑은 설렘과 안정, 본능과 책임감, 욕망과 애착이 전부 섞여 있는 감정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플라토닉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설렘이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약 이 인물들이 현대의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7. 연애프로그램에 비추어보면 각 캐릭터는 어떤 곳에 어울리는가?

>*빈: 저는 시몽은 무조건 『솔로지옥』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지옥』의 ‘김현중’ 출연자와 굉장히 겹쳐보였는데, 한 사람한테 완전히 몰입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감정선이 크게 흔들리는 연애 프로그램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특히 메기 역할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흔들 스타일 같았어요. 책에도 묘사되어있듯 길가던 여자들이 모두 눈길을 줄 정도로, 그리고 파티의 여자들이 시몽을 흐뭇하게 바라본다는 서술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정도면 연프에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할 상으로 보여요.

>*은: 맞아요. 외모 묘사도 연애 프로그램 제작진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잘생긴 인물로 계속 묘사되는건, 와 현실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건가요.

*인: 근데 시몽은 연애 프로그램 나가면 진짜 과몰입할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도 혼자 못 헤어 나오는 스타일 느낌일 것 같은데요?

>*빈: 그리고 풀은 『나는 SOLO』 돌싱특집 느낌 아니에요? 『돌싱글즈』 보다는 현실 많이 따지고, 감정보다도 안정이나 조건과 사회적 시선을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게다가 이 당시 프랑스 1950년대에는 리프팅, 울씨라, 보톡스 시술도 없었을텐데 풀이 반할 정도로 아름답다니 분명히 나는 솔로에서 첫인상 투표 1위 옥순을 받을 수 있을거예요.

>*은: 옥순이는 인터뷰할 때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 제일 많이 할 것 같았어요.

>*인: 그리고 괜히 혼자 고민 엄청 하다가 결국 아무도 확실하게 못 붙잡는 스타일 같기도 했어요.

>*빈: 맞아요, 분명히 시몽한테 흔들리긴 하는데 끝까지 현실과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느낌이 강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은: 근데 또 그런 현실성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했어요. 실제 사람들도 다 감정만 따라 움직이지는 못하니까요.

>*빈: 그리고 로제는 솔직히 연애프로그램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현실에서 너무 바람둥이 재질이라 굳이 프로그램까지 안 가도 알아서 메지 같은 여성분들과 연애 계속 할 것 같은 느낌? 방송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인: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연프 나가면 안되죠...

>*빈: 그리고 보니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상연하 관계 이야기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 차이 자체보다 누가 더 관계에 책임감과 확신을 보여주느냐인 것 같아요. 시몽처럼 어린 쪽이 오히려 더 확신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작년 10월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렸던 연애프로그램 『누난 내게 여자야』의 무진본희 커플도 띠동갑 커플이지만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무진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희에게만 직진하고, 오히려 본희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시몽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폴에게 오히려 더 “주변 할망구 말들 듣지 마.”하며 안심시켜주려 하고, 또 어쩌면 폴보다 폴을 더 아껴서 로제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입을 다물죠.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폴에게 계속 안심을 주려 하고, 심지어 로제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폴이 상처받을까 봐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시몽이 관계를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인: 그래서 더 씩씩한 결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몽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폴은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잖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순한 삼각관계 소설이라기보다, 사람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망설이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작품 같았어요.

>*빈: 프랑수아즈 사강이 이 작품을 스물넷에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쩌면 이런 복잡한 감정 자체를 아주 예민하게 통과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서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읽고 나면 설레는 감정보다도, 사랑이 지나간 자리 특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남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쓰는 밈이라 완전히 진지한 분석은 아니지만, 의외로 캐릭터 해석이 꽤 잘 되더라고요. 보통 ‘에겐남/녀’는 감정선이 섬세하고 상대 반응에 예민하며 사랑 안에서 불안과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으로 이야기되고, 반대로 ‘테토남/녀’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자유롭게 자기 욕망에 솔직한 이미지로 소비되잖아요.

8. 현대 연애 밈으로 본다면 각 인물은 어떤 연애 성향에 가까울까?

>*준: 그런 기준으로 보면 폴은 굉장히 ‘에겐녀’ 같았어요. 로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계속 흔들리고, 사랑 안에서도 안정과 확신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반면 로제는 완전히 테토남 느낌이었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 방식과 자유를 끝까지 놓지 않고, 관계보다 자기 삶의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리고 시몽은 연하남 캐릭터라 겉으로는 직진하고 감정 표현도 강해서 되게 테토남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랑 방식 자체는 엄청 순정적이고 감정 몰입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견 에겐남’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성격이 더 좋다, 어떤 조합이 좋다, 이런걸 넘어 서로 다른 사랑의 성향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안과 결핍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사랑은 나와 가장 다른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다른 때문에 가장 흔들리는 감정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빈: *준 님이 언급한 것처럼 폴이 굉장히 ‘에겐’ 성격이라는 점에 공감해요. 로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계속 흔들리고, 사랑 안에서도 안정과 확신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 로제에게 약속을 취소당하고도 팬찮은 척, 혼자서도 잘 지내는 척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 자체가 로제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면 로제는 완전히 ‘회피형 테토남’ 느낌이었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 방식과 자유를 끝까지 놓지 않고, 관계보다 자기 삶의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시몽은 감정이 풍부하고, 또 20대답게 상대의 마음보다 본인의 마음이 앞서는 에겐남 같았어요. 요즘 인터넷에 에겐인지 테토인지 구별하는 성격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 한 번 각자 인물을 뒤집어 쓰고 몰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 어때요? 먼저 답이 거의 정해진 듯한 로제부터 이입해볼까요?

>*준: 저는 로제가 ‘테토’라는 결과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로제는 관계 속에서 한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머무르기보다 계속 새로운 자극과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폴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감정적으로도 쉽게 한 관계에 안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감정보다 본능과 욕망, 즉 자기 욕구를 우선하는 테토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로제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묶이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빈: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로제는 감정 표현 자체는 굉장히 솔직하고 적극적인 편인데, 그 방식이 상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흔들여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폴도 결국 로제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관계 방식 자체가 테토적인 사랑의 특징처럼 느껴져요. 다만 단순히 가벼운게 아니라 로제는 사랑을 통해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결국 다시 폴에게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 그런데 저는 로제가 극단적인 테토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폴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잖아요. 시몽이 등장한 뒤부터는 폴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폴에게는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제는 사랑 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책임지는 관계는 두려워하는 인물 같아서 회피형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토 안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은: 저는 오히려 로제가 왜 테토처럼 보이는지를 생각해보게 됐어요. 로제는 항상 자유롭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남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물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관계를 계속 만들고,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인지 확인받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성향이 로제의 성장 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로제는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역시 서로에게 헌신하기보다 각자의 삶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였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로제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증명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결국 로제의 테토적인 모습은 바람기를 넘어 사랑에 대한 불안과 자기확인의 욕구에서 나온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은: 다음 시몽에 이입해서 결과에 대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 시몽이 에겐이라는 결과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시몽은 사랑을 굉장히 감정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잖아요. 폴을 만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폴에게 맞춰질 정도로 몰입하고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요. 특히 폴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때도 시몽은 끝까지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상대를 깊게 공감하고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에겐의 특징처럼 느껴졌어요.

>*빈: 저는 시몽이 단순히 다정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시몽은 사랑에 굉장히 솔직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예요. 폴에게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에겐 특유의 감정적인 직진형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로제랑 다르게 시몽은 관계 자체에 자신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 저는 시몽이 폴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에겐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시몽은 폴을 단순히 연애 상대로 보기보다, 폴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폴이 나이가 더 많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부분까지 품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몽의 사랑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은: 저는 시몽이 왜 에겐처럼 느껴지는지를 생각해봤는데, 결국 시몽은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기보다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인물 같았어요. 물론 미숙한 부분도 있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성향이 시몽의 성장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작품에서 시몽의 아버지는 일찍 가족 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몽을 굉장히 아끼지만 정작 시몽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시몽이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외로움을 일찍 경험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또 어머니의 애정 자체는 충분히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불안한 경쟁보다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몽은 풀을 붙잡기 위해 흔들거나 밀어내기보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트리플 씨(OCC)]
에겐 VS 테토 테스트

에겐 VS 테토, 당신은...
테토남(녀)



꼭 놀러 이미지를 저장해주세요.

테스토스테론 MAX
연인이 의지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한
테토 인간

테토 유형은 한 마디로
논리 · 직진 · 주도형!

테토 유형 특징

1.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만 마인드
2. 이성에게 잘 의지하지 않는다.
3. 이성을 볼 때 능력이 1순위가 아니며, 외모나 자기 관리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트리플 씨(CCC)]
에겐 VS 테토 테스트

에겐 VS 테토, 당신은...
에겐남(녀)



꼭 놀러 이미지를 저장해주세요.

에스트로겐 MAX
내 연인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에겐 인간

에겐 유형은 한 마디로
감정형이자 공감형!

방구석연구소 X OCC

유형별 공합

에겐남이신가요?

감성 맑고 눈치 빠른 스타일

- ♥ 최고 공합: 테토녀
리드해주고 방향 잡아줘서 안정감을 느낀다.
- 👉 괜찮은 공합: 에테녀
서로 상황을 맞춰주면서 감정도 이해해준다.
안정적이지만 자극은 덜함.
- ✖ 최악 공합: 에겐녀
서로 눈치만 보다 끝나거나,
결정 못 하고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에겐녀이신가요?

감성 깊고 공감력 높은 타입

- ♥ 최고 공합: 테토남
직진 + 확신 + 리드해줘서
"이 사람 믿고 가도 되겠다" 느낌이 든다.
- 👉 괜찮은 공합: 에테남
공감도 해주고 필요할 땐 리드해주시,
무난하고 오래간다.
- ✖ 최악 공합: 에겐남
둘 다 상처 안 주려다 더 상처 주는 경우가 있다.
답답 + 감정 소모가 심하다.

▶ 차례로 로제, 풀, 시몽의 에겐 VS 테토 결과

>*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각 인물들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려볼까요?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얼굴이 있을텐데 한 번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찾은 표현들과 분석한 성격을 반영해서 AI를 활용해 그려볼까요?



>*빈: 이상 이번 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활동 자료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5.12. 화 19:00-22:00		장소	도서관 4층 C square Amber Orange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시지프신화			저자	알베르 카뮈
	출판사	책세상	출판연도	1997	번역자	김화영
오늘의 북클럽 주제	그럼에도,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 『시지프 신화』에서 배우는 부조리와 행복					
활동 내용 & 방법						
<p>‘락’을 다룬 책으로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를 선정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시지프 신화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본 후, 책의 내용과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부조리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작중에 등장한 네 종류의 부조리한 인간 군상(돈 후안, 배우, 정복자, 창조자)을 현실 속 예시와 연결 지어보며, 부조리에 대한 반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뮈 철학 속 부조리 및 자살의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살을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나아가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았다.</p>						
활동 결과						
<p>1. 시지프 신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p> <p>>*빈: 사실 『시지프 신화』는 지금까지 다뤄왔던 책들에 비해 좀 난해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설을 주로 다뤘다면 『시지프 신화』는 철학서나 에세이에 가깝고, 이 책이 담고 있는 사상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용어들까지 조금 비밀상적으로 느껴지니까요.</p> <p>>*인: 맞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부조리’라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례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부조리를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쓴다면, 카뮈는 상당히 철학적인 용법으로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고, 절대적이며 통일된 것을 좋아하는 ‘우리’와, 결코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원리로 이해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세계 사이의 팽팽한 대립. 그게 카뮈가 설명하는 부조리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p> <p>>*준: 네, 맞아요. 카뮈는 그런 부조리에의 반응으로써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내용을 전개하죠. 가장 먼저</p>						

서두에 나온 파격적인 문장처럼, 우린 자살로 도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약’이라고 설명하는, 초월적인 신이나 종교를 위시한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선택지는 모두 운명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는, 한계점에 이르러서의 수용이라고 작가는 설명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자살하지도, 거짓 희망을 품지도 않은 채 반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은: 여기에서 반항이라는 게 살짝 낯선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죠? 우선, ‘지성이 세계를 안고 대결함으로써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즉 자신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직시하며 삶을 관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 간 끊임없는 대면’, ‘동경도 희망도 없는 현존의 증거’라는 서술은 좀 막연한 면이 있어요.

>*인: 맞아요. 그 외에도 희망, 비약, 도피..., 부조리만큼이나 애매하고 막연한 용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희망이나 비약이란 부조리에 대한 회피 중 하나로, 신이나 천국, 혹은 다른 어떤 관념을 믿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성 같았어요. 또 도피란 그런 비약에 더해 육체적 자살까지 포함하는, 카뮈가 권장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았어요.

>*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와 별개로 책에 나온 서술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는 건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카뮈가 표현했듯, 인간 통찰로 외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요지는 가장 마지막 장인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 동의해요. 전체 책에 비해서는 짧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지만, 지지한 철학적인 용어에 비해 훨씬 이해가 쉽고, 요점을 풀어 썼다는 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시지프 신화』가 된 게 아닐까요? 어쨌든 이 장에서는 신들에 의해 부조리한 운명을 부여받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시지프로 비유를 들며,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할 논거를 설명하죠.

2. 시지프의 사례: 어쩌서 부조리로부터 행복(樂)을 얻을 수 있을까?

>*인: 저도 아주 잘 기억나요.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문장이자 가장 유명한 명문장인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p.185) 하지만 어떤 점에서 시지프가 행복한 건지, 내지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렵긴 했어요. 다들 어쩌서 시지프가 행복한지 이해하셨나요?

>*은: 우선 락(樂)이 무엇인지부터 정의 내리는 게 좋겠네요. 전체 테마인 희노애락 중 첫 번째 책, 『멋진 신세계』에 대해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희(喜)와 락(樂)의 차이에 대해 다뤄봤었죠?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기쁨은 희(喜)에 가깝고, 고통과 의미를 통과한 후 삶 전체에 오래 지속되는 기쁨은 락(樂)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말하자면 락(樂)은 고통을 지워 버리는 대신에, 고통과 불완전함을 견디는 상태라고요.

>*빈: 그런 점에서 확실히 락(樂)을 배우기엔 『시지프 신화』가 적합하기는 했네요. 물론 카뮈라는 철학자의 주관적인 사상을 다룬 에세이다 보니,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나 견해가 다를 행복에 관해선 딱 이 책이 옳다 잘라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합치될 수 없는 우리와 세계 간의 분명한 갈등에서부터 락(樂)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를 와닿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준: 저도 이 책에서 부조리와 관련해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서장에서, ‘무대 장치가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아침에 기상, 전차로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네 시간, 식사, 전차, 네 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개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p.29) 이

부분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한국 학생의 삶과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요?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 문득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거죠.

>*빈: 맞아요. 제 경우에는 흔히 고뇌의 시기라 부르는 사춘기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카뮈처럼 좀 더 머리가 굳어진 다음에도 비슷한 고찰을 종종 했어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조금은 고통스러운 사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무대 장치가 붕괴되는 순간'이나 '인생에 대한 사색'이라는 표현을 들으니 생각났는데, 전 사실 오늘 이 독서 토론을 오는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도로에 정말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부조리의 극치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지루하고 안락한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흘러가던 나의 삶이 타인의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평소 막연하게 나는 죽음과 거리가 멀 거라고 믿었고, 더 정확하게는 죽음이나 특히 자동차 사고에 대해선 추후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과연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존재더라고요. 그 순간에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부조리한지가 온몸으로 실감 났어요.

>*은: 살짝 결레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사고 이야기를 들으니 묘한 아이러니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저자인 카뮈 본인도 결국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카뮈가 생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것까지 알고 나면 이는 그 자체로 참 부조리한 비극이죠. 이런 흥미롭고 비극적인 일화도 그렇지만, 카뮈라는 인물 자체가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알제리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청년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참상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인류가 쌓아온 기존의 가치관이나 믿음이 한순간에 무차별적으로 와해가 되는 걸 목격하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시대에 만연했으며 특히 카뮈는 누구보다 그런 심정이 강했다고 알고 있어요.

>*준: 바로 그 시도의 결과물, 부조리로부터 '락'을 도출하는 방법이 『시지프 신화』에 담겨 있는 거로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대답을 갈구했듯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답하는 방향으로는 아니었지요. 우리가 앞서 토론했듯 카뮈는 설사 삶에 의미나 진리가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잖아요.

>*빈: 그래요. 시지프는 삶에 긍정적인 지향점이나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시지프의 소리 없는 기쁨은 송두리째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응시할 때 무슨 우상은 침묵한다.' (p.185) 이 문장처럼요.

>*인: '행복과 부조리는 같은 땅이 낳은 두 아들이다.' (p.184)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말씀하셨듯 우리 삶은 참 부조리로 점철되어 있지요. 그런 삶에서 구태여 억지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무의미함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 뭔가 위로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 부조리한 인간: 돈 후안, 배우, 정복자와 창조자?

>*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부조리와 행복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나누었는데, 2장 '부조리한 인간'과 3장 '부조리한 창조'에서는 그렇게 부조리한 인간상을 여러 부류로 나눠 설명했죠?

>*빈: 네. 돈 후안, 배우, 정복자, 그리고 그 위의 창조자 혹은 예술가였어요. 돈 후안은 수많은 여인을 사랑했듯이 알 수 없는 미래보다 그때 그 순간에 집중하며 사랑을 다하고, 배우는 무대 아래 내려가는 순간 연기한 인물의 인생이 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운명을 기꺼이 실현하죠. 정복자는 그 자체로는 자신들의 정복이 무용할

것임을 앞에도 주어진 한계와 운명에 항거하고요. 창조자는 상술했듯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세계를 감히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부조리한 사고의 가장 큰 야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구요.

>*인: 이렇게 다양한 인간군상으로 부조리한 사람을 설명한 걸 보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돈 후안이나 배우, 정복자나 창조자가 계시는 분이 있나요?

>*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복자 같은 유형이 떠오르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운동, 음악,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복하듯이 도전해요. 하지만 그건 그 분야에서 자격증 같은 이득을 얻어 가거나 일인자가 되고 싶단 욕심보다는, 본인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넘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설사 그러한 배움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종국에는 잊힌다고 해도, 도전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빈: 저는 창조자의 자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짧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창한 상을 타거나 관련 직업을 가지겠다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카뮈가 말한 창조자처럼, 어차피 제가 빚어낸 예술로 이 복잡한 세상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작품들이 영원히 기억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제 안의 생각과 정신을 밖으로 온전히 표출해 낼 수 있거든요. 결과가 덧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만의 세계를 묘사하고 조형해 나가는 행위 자체가 제겐 가장 부조리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은: 저는 굳이 꼽자면 돈 후안 같은 타입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흔히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을 즐기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곤 하죠.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건 좀 서글프다고 봐요. 그래서 전 영원히 알 수 없을 내일을 그저 바라보기보다, 순간순간의 현재를 가능한 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돈 후안이 내일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보다 오늘 눈앞에 있는 연인에게 온 마음을 다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 다들 좋은 사례들을 잘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이제 배우만 남았군요? 제 친구 중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서 매주 무대에 서는 아이가 있어요. 연극 동아리는 조금 생소하다 보니, 예전에 그 친구에게 연기를 하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궁금증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누군가의 삶을 허구로 연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덧없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삶에 충실할 수 있어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 와닿지는 않았는데, 오늘 부조리한 인간에 대해 토론하고 나니 그 대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네요.

4. 자살은 과연 언제나, 절대적으로 잘못된 선택인가?

>*준: 『시지프 신화』에서 카뮈는 삶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하더라도, 그렇기에 오히려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살 역시 삶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는 선택으로 비판하고요. 그런데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자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빈: 실제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과 작별한 뒤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스위스 등의 나라에 가서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특정한 이틀만 누릴 수 있는 선택권처럼 비치기도 하죠. 자살을 권장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인: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됐어요. 사실 우리는 자살을 너무도 당연하게 부도덕한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삶 자체가 개인의 것이라면, 죽음에 대한 선택 역시 어느 정도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특히 안락사처럼 충분한 숙고와 의식적인 준비 끝에 내리는 결정은 충동적인 선택과는 또 다르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더 큰 압박이나 고통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 맞아요. 실제로 저는 임종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 전체가 계속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이해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위로보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생존 자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아닐까 싶었어요.

>*은: 어떻게 보면 『시지프 신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조리에 대한 반응 양식 중에 ‘비약’이 있었죠? 부조리를 직면하지 않은 채, 특히 신이나 종교,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초월적인 가치로 도피하는 선택지 말이에요. 말씀하신 예시들처럼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본인이 대면해서 찾지 않고, 특히 막연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남이 억지로 주입해 준다면 그건 부조리를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비약으로 이끄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카뮈는 자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무작정 좋아 보이는 핑계만 대가며 자살을 막는 제삼자도 비판한 것 같군요.

>*준: 네, 나아가 카뮈는 삶의 의미를 억지로 만들거나 도피하지 말고, 그냥 부조리한 상태 그대로 응시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서 말씀하셨듯 꼭 세상이 요구하는 거창한 이유나 목적을 찾지 않아도 지금 내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인: 맞아요. 토론 중에 나왔던 “인생을 보너스 게임처럼 살아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꼭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온전히 느끼며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과 죽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선과 악, 득과 실로만 나누기보다, 인간이 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는 게 힘든지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 자료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수레바퀴 너머					
일시/장소	일시	2026. 05.14. 목 19:00-22:00			장소	도서관 4층 C square Amber Orange
참여 인원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한*빈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권*인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박*은
	학과	*학과	학번	2025****	이름	오*준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한 * 빈 (서명)	
도서	도서명	시지프신화			저자	알베르 카뮈
	출판사	책세상	출판연도	1997	번역자	김화영
오늘의 북클럽 주제	카뮈의 부조리 철학으로 다시 바라본 인간의 감정					
활동 내용 & 방법						
<p>지난 시간에는 희노애락 중 ‘락(樂)’을 다룬 책으로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를 읽고 토의했다. 기존 활동에서 다루었던 ‘희(喜)’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다룬 ‘락(樂)’은 삶 전체를 관통하며 지속되는 깨달음과 태도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듯 카뮈의 부조리 철학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지프 신화』로 깨달은 ‘락(樂)’을 더 깊게 생각해보고자 이전에 읽었던 작품들에 적용해 보았다. 먼저 『멋진 신세계』 속 존이 왜 끝내 삶을 지속하지 못했는지 질문하며, 부조리를 자각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환자들이 겪는 낙인과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카뮈의 반항 개념과 연결지어 바라보았으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는 반복되는 권태와 고독 속에서도 왜 인간은 다시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했다. 또 전체 활동을 마무리하며 관련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함께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희노애락 전체 활동이 단순한 독서 활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p>						
활동 결과						
<p>1. 락(樂)으로 다시 묻는 희(喜): 존은 왜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을까?</p> <p>>*준: 『멋진 신세계』의 야만인 존은 문명사회가 제공하는 소마와 쾌락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그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면서, 인간이 고통과 결핍까지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 모습이 카뮈가 말한 부조리를 직시하는 인간과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카뮈는 부조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 역시 삶에 굴복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렇다면 존은 왜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에 도달했을까요?</p> <p>>*인: 저는 존이 부조리를 끝까지 견뎌낸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끝내 의미 없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존은 문명사회의 공허함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랑이나 절대적인 가치 같은</p>						

걸 갈망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셰익스피어의 문장이나 과거의 도덕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그런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무너진 거죠. 결국 존은 세상의 무의미함 자체보다도, 자신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가치가 사라졌다는 절망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존과 시지프의 차이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고 느꼈어요. 카뮈는 희망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존은 희망이 사라진 순간 삶 자체도 무너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은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구경거리가 되고, 점점 스스로도 그 사회에 오염되어 간다는 감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이 단순히 약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부조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은: 저는 또 존이 끝까지 혼자였다는 점도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시지프는 혼자 바위를 굴리는 인물이지만, 카뮈는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존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야만인 보호구역에서도, 문명사회에서도 끝내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존은 세상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의 고립감까지 동시에 견뎌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삶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끝까지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감각 속에서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2. 락(樂)으로 다시 묻는 노(怒): 왜 환자들은 끝내 보이지 않는 철조망 안에 머물게 되는가?

>*빈: 『당신들의 천국』 속 한센병 환자들은 평생 낙인과 격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환자들은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이 카뮈가 말한 반항하는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조백헌 원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물리적인 철조망이 사라졌는데도, 오히려 환자들 스스로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은: 저는 그 철조망이 결국 사회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주입해 온 낙인과 자기검열이라고 생각했어요. 조백헌 원장은 환자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선의 역시 결국은 환자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남겨두잖아요. 그러다 보니 환자들도 점점 ‘나는 환자니까 여기까지가 맞다’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문은 열려 있어도, 정작 자기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무섭네요.

>*인: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섬을 탈출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작품 후반부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당신들의 천국 안에 머무는 것보다, 스스로 황무지를 일구고 자기 몫의 삶을 만들어가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게 보였거든요. 카뮈가 말한 시지프도 결국 바위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위를 자기 의지로 다시 밀어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환자들이 외부의 동정이나 보호 속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비로소 해방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느꼈어요.

>*준: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단순히 차별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의 자체도 조심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백헌은 분명 환자들을 위해 행동하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준 안전한 삶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자기 선택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철조망은 사회적 낙인인 동시에 스스로도 어느 순간 내면화하게 된 두려움과 체념이라고 느꼈어요.

3. 락(樂)으로 다시 묻는 애(哀): 폴은 왜 다시 로제에게 돌아갔을까?

>*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폴은 로제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외로움과 권태를 느끼잖아요. 카뮈는 이런 권

태가 인간이 어느 순간 삶의 반복과 무의미함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폴 역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폴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시몽에게 끌리는 것도, 단순한 설렘이라기보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폴은 시몽을 떠나보내고 다시 로제에게 돌아가죠. 왜 폴은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도 끝내 이전의 관계로 회귀했다고 생각하나요?

>*빈: 저는 폴도 결국 시몽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시몽과 함께하면 당장은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삶의 외로움이나 권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불안과 반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폴은 새로운 사랑에 모든 희망을 걸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로제와의 관계 속 고독을 다시 감당하기로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폴의 선택은 다시 불행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폴이 로제와의 관계가 가진 한계와 상처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다시 그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사랑이나 구원이 존재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불완전한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선택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단순한 체념이라기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인: 그런데 저는 폴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웠어요. 사람은 익숙한 관계 안에서 상처받더라도, 그 익숙함 자체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폴도 로제와 함께 있으면 계속 외롭고 흔들리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이미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이 로제를 선택한 게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과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간이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알면서도 반복하는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4. 『멋진 신세계』와 영화 설국열차

>*준: 『멋진 신세계』를 읽은 뒤 영화 「설국열차」를 함께 떠올려 보았다. 두 작품 모두 철저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결핍과 억압을 느끼고, 결국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왜 인간은 완벽하게 설계된 사회 속에서도 끝내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걸까?

>*인: 저는 인간이 단순히 안정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국열차」에서도 꼬리칸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가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멋진 신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소마를 통해 계속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이나 고통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인간은 불안과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 삶을 직접 느끼고 선택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 맞아요. 저는 두 작품이 모두 ‘행복’의 기준 자체를 다시 질문한다고 느꼈어요. 통제된 사회에서는 갈등이나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자유나 개성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존이나 커티스 같은 인물들이 체제를 거부하는 건 단순히 불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카뮈 역시 인간이 완벽한 의미나 안정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 것 같아요.

>*빈: 저는 특히 두 작품 모두 ‘안락함’이 때로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라서,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완전함과 갈등이 인간다운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당신들의 천국』과 스테판 라진의 처형

>*은: 『당신들의 천국』 활동을 마무리하며 쇼스타코비치의 클래식 곡 「스테판 라진의 처형」을 함께 감상했다. 곡 전체가 무겁고 비극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는데도, 단순히 절망스럽기만 하기보다는 끝까지 무언가를 버티고 저항하려는 감정이 느껴졌다. 특히 권력과 억압 속에서도 인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모습이 소록도 환자들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왜 인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

>*빈: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눌러 있는 긴장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곡 분위기는 어둡고 비극적인데, 완전히 체념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당신들의 천국』 속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억압받고 낙인찍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기 삶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끝까지 살아가려는 이유가 거창한 희망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존재 자체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 맞아요. 저는 이 곡이 단순히 슬픔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남아 있는 인간의 자존감 같은 걸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환자들이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고, 계속 자기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특히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직접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인: 저는 음악과 작품을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존엄’이라는 게 특별한 성공이나 자유를 얻었을 때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는 태도 자체가 인간의 존엄인 것 같았어요. 카뮈도 부조리한 현실을 없애는 것보다, 그 현실을 인식한 채 계속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를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곡과 『당신들의 천국』 모두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끝까지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6.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브람스의 클래식 음악

>*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은 뒤 브람스의 클래식 음악을 같이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막 화려하거나 밝다기보다는 조용하고 조금 쓸쓸한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작품 속 폴의 모습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슬픈 감정인데도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왜 완전히 행복한 감정보다도, 이런 외로움이나 권태 같은 감정 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 저는 브람스 음악이 감정을 갑자기 크게 터뜨리기보다는, 조용히 계속 이어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폴도 엄청 극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계속 비슷한 외로움과 권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그런 익숙한 감정 속에서 자기 삶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 맞아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슬픈 분위기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망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애매한 감정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현실의 감정이라곤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폴이 다시 로제에게 돌아가는 결말도 단순히 불행하다기보다는, 결국 사람이 가장 익숙한 감정과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준: 저는 책만 읽었을 때보다 음악을 같이 들으니까 폴의 감정이 더 이해됐어요. 사실 사람은 항상 행복한 상태만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된 관계나 익숙한 감정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브람스 음악도 계속 조용히 감정을 남겨두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폴이 쉽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랑

답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7. 『시지프 신화』와 희곡 오이디푸스 왕

>*빈: 『시지프 신화』를 읽은 뒤, 같은 그리스 비극 계열의 작품인 『오이디푸스 왕』 희곡을 함께 읽고 일부 장면을 직접 짧게 재연해볼까요?

(희극 대본집 사진)

희극 대본을 바탕으로 재연해보았다.

>*인: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에 퍼진 재앙의 원인을 찾던 왕 오이디푸스가,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비극적인 진실의 당사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비극 작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대사를 읽고 연기해보니까 인물들의 감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오이디푸스가 끝까지 진실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진실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시지프처럼, 결과를 바꿀 수 없더라도 끝까지 자기 삶을 마주하려는 인간의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준: 저는 직접 대사를 읽어보니까 오이디푸스가 단순히 비극적인 피해자처럼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진실을 알려고 하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 뒤에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카뮈가 말한 시지프도 바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계속 밀어 올리는 존재인 것처럼, 오이디푸스 역시 자기 운명을 알고도 계속 살아간다는 점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빈: 저도 연극 형식으로 표현해보니까 감정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오이디푸스가 진실을 깨닫는 장면을 직접 읽어보니까 단순히 충격적인 결말이라기보다, 인간이 끝까지 자기 현실을 마주하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눈을 찌른 뒤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결국 인간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더라도, 자기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려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점이 『시지프 신화』와 연결된다고 느꼈어요.

>*은: 저는 희곡을 직접 재연해보면서 인간의 비극이 특별한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반복되는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지프 신화와 답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깨닫고도 끝내 살아갑니다. 그래서 카뮈가 말한 ‘부조리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개념도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삶을 감당하려는 태도겠죠.

>*빈: 이번 『시지프 신화』 토론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던 작품들을 다시 연결해보며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게 확장하는 과정이었다고 느꼈어요. 『멋진 신세계』의 존, 『당신들의 천국』 속 소록도의 환자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폴, 그리고 오이디푸스까지 모두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 속 인물이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부조리와 고독, 반복되는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완벽한 행복이나 정답을 찾기보다 각자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따라 이어졌던 이번 활동은 책을 읽는 시간을 넘어, 결국 인간과 삶을 이해해보려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수레바퀴 너머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토론 발자취를 따라 함께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수레바퀴 너머 일동

(단체사진)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희극을 일부 재현해보았다.

활동 자료

(단체사진)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